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백신의 보급과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의 승인으로 코로나의 종료를 눈앞에 둔 것처럼 여겨졌지만 겨울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폭증하고 있다. 사진은 감염검사를 받고 있는 코로나 환자

너무 마음 놓았나, 매스주 우려스런 감염자수 폭증

전문가들, 감염 확산 방지는 백신 접종이 핵심 강조
뉴햄프셔 버몬트 등 뉴잉글랜드 전역 감염자 급증 추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지난 주말 피바디 소재 게임 아케이드를 방문했던 정모씨는 90% 이상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 얼핏 더 이상 코

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존재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아니면 플루처럼 안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바꾼 게 아닌가 여겨졌다.

방심한 사이,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17일 9개월만에 일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 뉴잉글랜드를 놓고 볼 때 매사추세츠주는 전체 감염수에서는 인구가 많은 관계로 가장 많다. 인구비율로 봤을 때는 커네티컷을 제외하고 가장 적다.

▶▶5면으로 계속

매사추세츠, 18세 이상 모든 성인 부스터 샷 허용

메인 버몬트 주에 이어 매사추세츠도 부스터샷 확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8일부터 모든 18세 이상의 성인은 부스터샷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스터샷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한 경우 접종 6개월 이후,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한 경우 2개월 이후면 접종이 가능하다.

매사추세츠 주내에서는 현재 약 1천여 장소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하다. CDC는 부스터샷의 경우 교차 접종을 권장했다. 모더나를 맞은 사람은 화이자 백신 또는 존슨앤존슨을 맞는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부스터샷 접종을 원하는 한인들은 vaxfinder.mass.gov에서 접종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접종이 편리한 곳을 선택해서 예약하면 된다. 특정 백신을 원하는 한인들은 반드시 예약 장소에서 원하는 백신이 가능한지 이종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아닐 경우 취소하고 다시 예약을 잡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예약은 약 1주 ▶▶4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KATHY SONG

고객만족도 평가 5/5을 보여주는 고객 최우선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주택, 상가, 비즈니스 매입 매매 상담 환영합니다.

- **Chicopee** : 치코피 커머셜 빌딩 매매

Great rental history/
3 타입 비즈니스 입주 상태
자세한 내용은
캐시에게 문의 하세요.
6,500 Sq.
매매 \$649,000

Call Kathy Today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Restaurant for sale

현주인 16년동안 운영. 은퇴 원함.
안전하고 좋은 지역.
최고의 시설. 유명 대학 부근.
연 16만 순수입. 리스 많이 남아 있음.
페이를 받으시면서 일하시다가
구입하셔도 무방함.
가격 \$150,000

PK Property 부동산
Broker: Peter Han
cell/text message: 215.668.1666
Pkbroker7@gmail.com



11월 16일 보스턴 시티홀에서 가진 보스턴시장 취임식에서 미셸 우 시장(좌측) 가족의 선서를 주재하고 있는 전명진 판사(우측)

미셸 우 취임선서 주재한 한인 판사 전명진

미셸 우 보스턴 시장 16일 공식 취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최초의 한인 판사가 보스턴 최초의 아시안 여성시장의 취임선서를 주재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은 11월 16일 보스턴 시티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보스턴 시장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날 미셸 우 시장은 가족과 더불어 성경에 손을 얹고 보스턴 시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선서를 진행했다.

선서를 진행한 판사는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2016년 임명한 매사추세츠 한인 최초의 판사 전명진 판사였

다. 미셸 우 시장과 전 판사는 밝은 웃음을 띠면서 선서를 진행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전 판사는 보스턴코리아에 “판사의 윤리상 정치인 관련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역사적인 순간에 선서를 주재할 수 있게 요청해 준 미셸 우 선거 캠페인 측에 감사하며 영예롭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서 우 시장은 “처음 보스턴 시청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할 때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 대우를 받았다. 또한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위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토마스 메니노 시장의 인턴으로 일한 것이 현재의 시

장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우시장은 “(당선인사를 한지) 2주만에 다시 보게 됐다. 이 기간은 너무 짧았다”고 말해 좌중을 웃음짓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시장은 보스턴은 혁명적인 약속으로 시작된 도시라면서 무료 대중교통, 그린 뉴딜, 렌트 컨트롤 등 자신의 진보적인 의제들을 혁명적인 사고로 추진할 것임을 다짐했다.

우 시장은 취임사 마지막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끝을 맺었다.

hsb@bostonkorea.com



11월 16일 뉴튼 소재 보스턴 총영사관에서 열린 2021 유공재외동포 표창 전수식에서 유기준 총영사(오른쪽)가 장명술 대표(왼쪽)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

본지 장명술 대표 대통령상 수상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박현아 기자 = 2021년 세계 한인의 날 유공동포 정부포상 수상자로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대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유공 재외동포 정부포상은 한인들의 권익신장과 한인사회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선정,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수여된다. 외교부는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명단을 10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유기준 보스턴 총영사는 16일 뉴튼 소재 보스턴총영사관에서 포상 전수식을 갖고 장대표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달하고 수상을 격려했다.

장대표는 “대통령상을 수상해 영예스럽게 생각한다. 수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더 유익한 정보,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물냉면 14.95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비빔냉면 14.95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턴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매스 바이오인력 다양성 확보 노력, 아시안에 역차별 될까

매스 바이오 2021년 다양성, 평등, 포용(DEI) 보고서
인력 백인중심 여전, 아시안 인력이 다른 인종보다 많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내 바이오 제약회사들이 특히 흑인 및 히스패닉 등 유색 인종들의 제약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DEI(다양성, 평등, 포용) 추진이 자칫하면 아시안 역차별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스바이오(MassBio)가 발표한 2021년 DEI(다양성, 평등, 포용) 보고서에 따르면 60%의 바이오 인력은 백인이며, 아시안이 16%, 그리고 흑인과 히스패닉 등의 인종이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인구의 6%에 불과한 아시안이지만 바이오 업계에는 16%를 차지하며, 흑인과 히스패닉은 매스 인구의 32%를 차지하지만 전체 매스 바이오 인력의 15%만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백인은 MA 인구의 61%였으며 바이오 인력의 60%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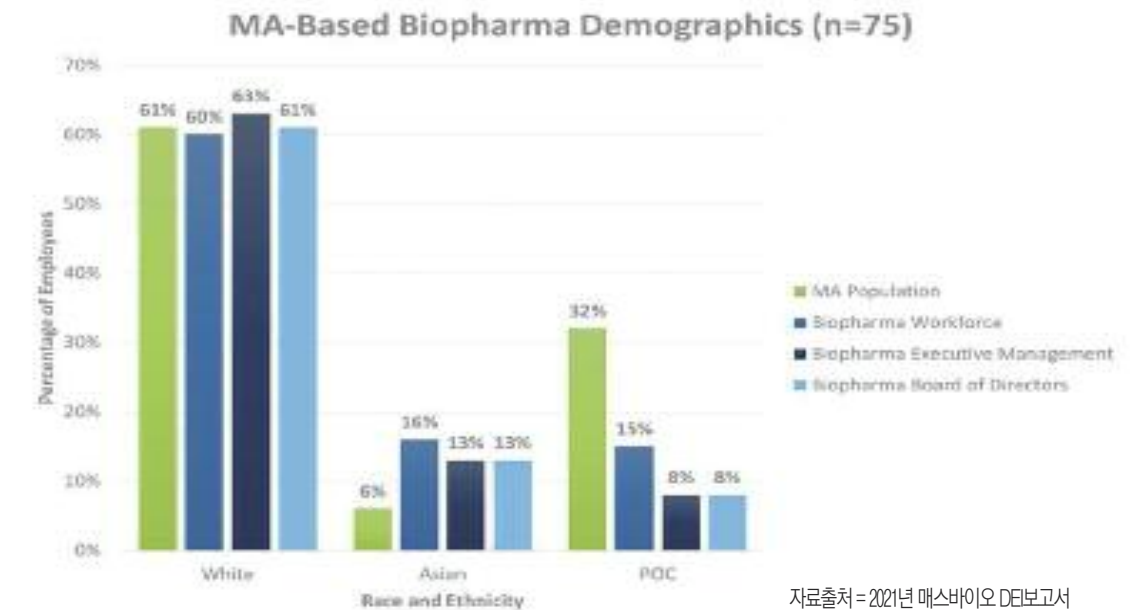
특히 바이오 제약업계의 임원진은 백인이 63%, 아시안이 13%, 기타 유색 인종이 8%를 차지했으며 이사진의 경우 백인이 61%, 아시안이 13%,

기타 유색 인종이 8%를 차지했다.

매스바이오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85개 바이오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이 자료를 조사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매사추세츠 바이오 회사 222명의 CEO들은 2020년 8월 좀더 유색인종 고용인력을 늘리겠다는 서약에 서명을 했다. 매스바이오에는 약 700여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매스 바이오는 DEI의 실천을 위해 다양성 성명서 만들기, DEI 설문 등을 통한 직원들의 참여, 다양성 대시보드 만들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응답회사의 56%가 첫번째 두 단계를 실시했으며 단 24%만 다양성 대시보드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이 흑인과 히스패닉을 채용하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는 충분한 유색인종 인력자원이 부족해서였다.

매스바이오의 DEI자문대렉터인 로스 마샬은 “이 같은 인력의 확보는 아직 요원한 마라톤이지만 계속 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



자료출처 = 2021년 매스바이오 DEI보고서

샬은 매 2년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하며 제약업계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매스바이오의 DEI 추진이 유색인종이면서도 유색 인종으로 분류되지 않는 아시안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아시안을 단독으로 표기에 분류한 이유로 주내 인구 비율은 적지만 전체 매스 바이오 인력의 16%나 되는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양성을 추구하며 백인이 아닌 아시안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도 배

제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하버드 아시안 입학 역차별 사례에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 다양한 인종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어퍼머티브액션(Affirmative action)에 의해 아시안 지원자들은 백인은 물론 흑인 및 히스패닉보다 훨씬 높은 SAT 점수를 받아야 입학이 가능하다.

2014년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Students for Fair Admissions)그룹이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아시안 학생들을 입학심사과정에서 차별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트럼프 산하 법무

부는 2017년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아시안의 역차별 소송은 백인 보수층들의 어퍼머티브액션 폐지 노력에 도구로 이용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시안의 차별 주장은 명분을 빼앗기고 다른 소수민족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하버드는 보스톤 연방지법과 연방순회고등법원에서 승리를 거뒀고 현재는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 중에 있는 상황이다.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8일부터 모든 18세 이상의 성인은 부스터샷의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9개월만에 일일 최고 신규확진자

17일 매사추세츠 하루 확진자 2천650명, 20명 사망
초, 중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자 가장 많아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수가 다시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을 외면하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하루 확진자가 2,650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20명이었다.

보건부가 발표한 17일 2,650명은 지난 2월 7일 발표한 일일 확진자 3,004명 이래 최고에 달하는 기록이

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병원 입원 환자수는 642명, 중환자실 환자는 124명,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는 63명이었다.

감염자 수가 늘어난 것은 2주전부터다. 11월 3일 주까지 7일 평균 1,182명이었으며 11월 10일 주는 1,481명으로 늘었다. 특히 주말 3일 동안 감염자 수는 15일 5,248명으로 더 증가했으며 16일에는 1,848명, 그리고 17일 들어서는 2,650명으로 확 늘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매사추세츠 뿐만 아니라 뉴잉글랜드 주 전체 그리고 미국내 전체 감염자수도 하루 8만 여명을 넘어섰다.

지난 1주간을 놓고 봤을 때 감염자들은 특히 20대(3,529)와 30대(3,415)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백신 접종이 이제 막 허용된 5세에서 9세 사이의 학교 재학생들의 접종도 2,305명으로 많았다. 5세부터 14세까지 10살 연령 구간으로 했을 때 4,400명으로 현재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는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18세 이상 모든 성인 부스터 샷 허용

▶▶1면에 이어서

일 정도가 소요된다.

코로나바이러스 부스터샷은 이미 안정성이 검증됐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부스터샷의 접종에는 자신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 증서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부스터샷과 플루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건강보험 카드를 요구한다.

다만 접종시에는 자신의 백신 접종카드를 지참해야 현장에서 부스터샷 접종 기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접종 장소에서는 접종 기록을 프린트로 제공하기도 하고 여타 접종장소에서는 추후 접종카드를 지참해 와서 접종 완료 증명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주는 94%의 성인이 최소한 1회 백신을 접종했으며 4백 80만명에 달하는 81%의 성인이 두 번째 접종을 완료했다. 현재까지 80만명이 부스터샷을 접종했다.

hsb@bostonkorea.com

렉싱턴 Wallis Dental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분 한분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클리닝, 충치치료, 신경치료
크라운, 브리지, 틀니, 임플란트

거의 모든 각종 보험 취급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치과의사 김민정

Boston University Dental School 졸업

20여년 이상 매사추세츠에서 치과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Boston University Dental School faculty.

TEL : 781.862.6565 (렉싱턴 센터에 위치)
1 Wallis Court Unit #4, Lexington, MA 02421

마음대로 골라본다
\$24.99

WIFI 내장 Compact size
Setup Box \$60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전상품 1년 약정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종합뉴스TV H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TBO KBS MBC SBS tvN net Olive OCN OnStyle

너무 마음 놓았나, 매스주 우려스런 감염자수 폭증

▶▶1면에 이어서

뉴햄프셔와 버몬트는 최근 가장 감염자가 급증한 주중의 하나였다. 15일 기준 뉴햄프셔 인구 10만명당 평균 신규확진자의 수는 58명이었으며 버몬트는 52.5명이었다. 메인은 35.9명이었고 로드아일랜드는 32.2명이었다. 매사추세츠는 27.6명이었고 커네티컷은 가장 낮은 16.1명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급증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난 7월 델타 바이러스가 덮치기 직전까지 신규 감염자는 10만명당 한 명정도 꼴이었다. 미국은 9월 이래 점차 전체 감염자수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지난 몇주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10만명당 7일 평균 확진자 수가 25.2명으로 증가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로 모여서 창문을 닫게 되자 코로나바이러스는 북쪽에서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여름철 남쪽에서 창궐했던 바이러스는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의 각주들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뉴햄프셔 보건부 에이크 레온 대변인은 “뉴햄프셔 크리스 서누누 주지사와 보건부는 오랫동안 겨울철 감염 급증 사태를 예고해왔다. 특히 뉴

잉글랜드주들은 델타변이로 인해 감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뉴햄프셔 보건부 에이크 레온 대변인은 밝혔다.

버몬트는 16일 부스터샷을 전체 성인을 상대로 확대하면서 이번 주말 연방 정부의 확대 발표에 앞서 부스터샷을 확대한 주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필 스캇 버몬트 주지사는 “감염자 급증사태를 완화하고 고위험군 버몬트 거주자들에게 전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히 겨울철엔 모든 사람이 부스터 샷을 맞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메인주 제넷 밀스 주지사도 부스터샷을 모든 성인에게 확대한다. 그는 “현재의 감염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연방정부의 복잡한 지침을 단순화해 가능하면 쉽게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보스톤메디컬센터 공중보건프로그램 디렉터인 캐산드라 피에르 박사는 겨울철 감염 증가는 예상했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에르 박사는 “한가지 원치 않는 것은 감염자 증가와 더불어 응급실과 입원환자 수의 증가”라고 강조했다.



감염 증가가 병원환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하는 핵심은 바로 백신 접종이라고 피에르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정말 우려해야 하는 것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65세 이상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고 혹 자칫하면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했다. 또한 실내와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결국에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바이러스라는 지적도 있지만 피에르 박사는 아직 그런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딱 잘랐다.

폴 삭스 브리검앤웨민스병원 감염병과 임상과장은 “아직 아주 적은수의 어린이만 백신을 접종했다. 어른들의 경우 백신의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2차 접종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난 성인들은 왜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지를 주장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미 FDA는 빠르면 이번주 목요일 부스터샷을 전체 대상 성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통제센터(cdc)도 바로 다음날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말이면 전체 확대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팍스 박사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빌딩의 환기 그리고 대규모 모임 전 속성 테스트를 사용할 것으로 권했다.

하워드 고 전 미보건부 차관보는 “델타변이의 집요함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층 그리고 시골 지역에서 백신 미접종자들 감염, 백신 효력의 약화로 인한 돌과 감염, 마스크 미착용 증가, 모임 증가, 추운 날씨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 박사는 “매사추세츠의 백신 접종율은 절대 충분치 않다. 연말 여행이 많아지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스터샷 모든 접종자에게 허용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미 두번의 백신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부스터샷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18일 화이자 부스터샷을 비상 승인할 예정이다.

FDA는 9월 화이자 부스터샷을 65세 이상에게만 허용했다.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기저질환 또는 고위험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만 허용됐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이 같은 FDA의 승인 권고가 오히려 부스터샷의 접종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부스터 샷 접종을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버몬트와 메인주가 이 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이와 더불어 화이자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백신 효력이 6개월 후 현저히 저하된다는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했으며 FDA는 이 같은 화이자의 자료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추정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CheongKwanJang

Source: Euromonitor International Limited; Vitamin and Dietary Supplement category; % retail value share, 2018-2019 data; CH2020 edition

가족에게 건강한 습관을 선물하세요



Happy Thanksgiving

가족건강이 가장 큰 감사!

Thanks Giving Family Giving

행사기간 : 11/8일 ~ 28일까지

면역력 1



홍삼톤, 자녀용 제품구입시
1개/2개/3개
5%/10%/20%

면역력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면역력 3



천녹정 구입시
홍삼원골드 한박스 추가증정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산사람들끼리 관계가 더 중요한 단체, 보스턴 산악회

창단 13돌, 초대 회장이자 현 회장 김상호씨와의 인터뷰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산을 함께 타는 사람들의 단체 보스턴산악회는 올해로 13살이 됐다. 2009년 창단해 최소한 1 번이라도 함께 산행을 한 후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모인 등록회원이 874명. 쌓인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100명에서 150여명 내외다. 보스턴 산악회 내에서 만나 결혼한 커플만도 벌써 5쌍이다.

10년이 넘는 단체지만 팬데믹은 산사람들의 모임도 막았다. 모임이 금지되니 단체활동도 위축됐다. 2020년 3월 그룹산행 중단했다. 팬데믹은 산악회마저 잊게 했지만 산악회는 산을 잊지 않고 있었다. 올해 5월, 15개월만에 산행을 재개한 것이다.

초대 회장이며 13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회장직을 수행하는 김상호 회장을 11월 9일 앤도버 소재 그래스필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미국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김상호 회장은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보병 장교로 근무했었다. 부드러운 웃음이 매력적인 김 회장은 산이란 얘기가 나오면 눈을 반짝였다. 그의 열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산속에서 살았던 경험이 보스턴 산악회 회장으로서 산행을 이끄는 리더의 바탕이 됐다. 독도법, 실제 겨울과 여름에 산에서 살아남는 방법, 벌레와 뱀을 피하는 방법 등 군의 야전 교본에서 배운 것들이다.

그의 경험을 녹여낸 산악회가 징검다리가 돼서 일반인들과 산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산은 전문인들만 독점하는 곳이 아니다. 누구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들과 동행해줄 따뜻한 동료이자 리더로서의 역할이 함께 있어야 한다. 김 회장은 “산을 모르고 가서는 안된다는 절대적 원칙이 있다. 산속에서 길을 잃는 상황이 생기고 정상부분에서는 날씨가 급변하는 상황 등에 대한 등산지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산에 관심있는 한인들이 언제든지 보스턴 산악회를 통해 안심하고 산을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런 단체로서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휴머니티가 필요하다는. 산악회는 결코 전문 산악인들만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룹산행이 필요한 이유

김 회장에게는 두명 이상이면 그룹이다. 보스턴 산악회는 다른 산악회와 달리 그룹산행을 한다. 산에는 차선도 없고 신호등도 없다. 트레일에 익숙하지 않으면 길을 잃기 쉽다. 심지어 베테랑 산악인들도 산에서 좌초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김 회장은 “앞에 누가 있고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면 사고의 원인이 된다.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당황하게 되고 방향을 몰라 헤매다 기진맥진 해지기 쉽다”고 말한다. 보스턴 산악회만의 차별화로 산행 경험과 능력에 따라 A,B,C조로 나눈다. A조는 전문 수준이고, B조는 산행 경험이 있는 회원, C조는 산행이 쉽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 자기 산행속도를 유지하고 당일 신체의 컨디션에 따라 조를 바꿔 산행을 한다. 각 조장은 위키토키를 통해 항상 인원을 확인하고 산행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한다.

김 회장은 “산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산악회원들은 사회적 명칭을 버리고 닉네임을 선택해 부른다. 자연은

본연의 모습으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을 오르는 과정이 행복

산악회는 10여년 250여차례 산행을 해왔고 매년 1-2회 타주 원정산행도 했다. 그럼에도 산악회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단이지 만 사람들끼리 좋은 그룹을 만들어가는 것이 근간이다.

정상을 앞에 두고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면 다음을 기약하고 정상이 허락하는 한 다시 한번 뚫아볼 수도 있다. 보스턴 산악회는 다시 도전하고 산에 올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

정상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쾌감도 있지만 정상에 도전하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더 행복이라는 사람도 많다.

산악회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Daum)에 카페에 들어가서 이메일도 있고 전화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이곳에 다음 산행에 대한 공지가 되어 있다. 본인이 편할 때 연락하면 된다.

보스턴 산악회의 미래

보스턴산악회는 10여년 동안 주변을 확대해 놓았으니 이제 사회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이다.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것이 산행의 범용화다. 3-4일 기본코스 지식교육을 실시하고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산악인을 길러내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단다.

김 회장은 “첫번째, 세번째 토요일만 산행을 하고 있다. 보스턴 인근에 좋은 트레일이 많다. 2주, 4주차에는 낮은 산과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초보자 그룹을 위한 산행을 보스턴 인근의 블루힐 등 트레일에서 시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2세들에게 소액이라도 장학금을 지급



김상호 보스턴산악회 회장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행은 체력 뿐만 아니라 정신단련

김 회장은 산에 대해서 묻자 첫마디가 육체 뿐만 아니라 정신을 단련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등산은 속도나 체력이 아니라 인내라는 것이다.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정상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산할 수도 없다.

한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은 “등산이 평지를 걷는 것과 다르다. 경사길을 올라가면서 모든 근육을 사용하며 뇌가 명령하는 데로 움직인다. 뇌가 주는 명령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뇌를 늙지 않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정신과 인내를 단련하는 곳이 바로 산악회다.

인생은 편도여행이다. 빠르게 가든 천천히 가든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꼭꼭 눌러 담아야 하는 이유다. 산을 이야기하면 눈빛이 반짝이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듯하다. 뇌의 젊음도 담고, 인내도 챙겨오니 말이다.

editor@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물가 상승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바이든 행정부, 연준, 미 기업들, 국민의 소비 모두 기여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의 주범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팬데믹이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음식, 가솔린, 모든 것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2021년 핵심 이슈로 대두됐다.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대비 6.2% 오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최저치로 끌어내렸다.

미국인들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탕스키빙 저녁 밥상에 오를 주요 화제는 분명히 공급망 경색과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 분명하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욕타임스는 여러가지 원인을 진단해 보았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진단해 나가며 마지막에는 쉽게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이 있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바이든 과 민주당 의회가 지난 겨울 선택했던 정책과 현재의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연관시켜볼 수 있다.

지난 3월 의회가 경기부양안을 구성할 때 바이든 행정부는 1.9조달러라는 거대한 팬데믹 지원안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통과시켰던 9천억달러 경

기부양안과 합했을 때 무려 2.8조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 자금이 올해의 미국 경제로 흘러들어가게 했다. 경제활동은 아주 건강한 경제상황에서보다 몇 천억달러만 적을 뿐일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너무 많은 돈이 적은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생긴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과소비가 주범이다.

그러나 수조달러가 미국 경제에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말까지 미국인들이 구입한 물품의 양은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보다 5백20억달러 즉 약 0.4%가 높아졌을 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기 부양자금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의 소득을 대신했거나 저축으로 들어갔다고 추정된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과소비와 통화량의 증가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연방준비은행

미 경제 사령탑인 연준은 과거 경제 사이클보다 훨씬 길게 아주 유연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일자리 시장이 정상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주었고 인플레이션은 '단기적' 이라고 예측했었다.

2015년 연준의 이자율을 상승이

미 경제에 줬던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 2015년 연준은 강력한 이자율 통제로 채 회복되지 않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파월 및 다른 연준 이사들은 아마도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있을 수도 있다. 아니라면 최소한 연준은 의도적으로 경제상승을 억누를 방법으로 물가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던 전통적인 역할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통화정책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연준이 발빠르게 이자율의 고삐를 죄었다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 가정은 적절하지 못하다.

미 기업들

팬데믹으로 섰다움이 이뤄졌을 때 각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를 심각한 경기후퇴로 감지하고 생산을 감축함과 동시에 부품공급을 줄였다. 또한 주요 렌탈카 회사들은 렌탈카들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 주문을 취소했다. 에너지 회사들은 신규 시추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았다. 상당수의 회사들은 인원을 감축했다.

미국은 현재 이런 회사들의 결정으로 인한 후폭풍에 휩싸여 있다.

팬데믹 초반 예상했던 강력한 경기후퇴는 생각보다 짧았고 회복이 가속화되었다.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자신들이 반도체 물량 주문을 취소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할 것이다. 렌탈카 회사들은 차량구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배송비와 개솔린값은 크게 상승했다. 일부 회사들은 인력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던 의사결정이 실제경제 상에서는 잘못된 결정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품들의 공급상황은 사실상 팬데믹 이전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문제는 그것보다 수요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미국인들의 소비는 서비스가 아닌 물품구매로 대체됐다. 서비스에 대한 소비는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보다 일부 약화된 반면 올해 9월 차, 세탁기, 가구 등의 물품 구매는 지난해 2월에 비해 18퍼센트가 증가했다.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이 같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아졌으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거나 더 적은 시간을 일하게 됐다. 실제

적으로 근로자의 수는 팬데믹이었을 때보다 적다. 근로자들의 부족은 더 많은 임금이 필요하게 됐다. 이는 비교적 과거보다 적은 수요를 보이고 있는 레스토랑 음식값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주범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인들의 구매의 전환과 근로 패턴의 변화가 이번 인플레이션의 주범인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정책과 연준의 정책도 여기에 일부 결들여졌다. 기업들의 팬데믹 초기 결정도 공급부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인플레이션의 책임 소재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큰 의문은 정책결정자들이 경제 재개를 둘러싼 문제들까지 예측했어야 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 촉진을 좀 더 완만한 수준으로 했어야 했다는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닥쳐올 인플레이션은 결코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의 판단 착오라기 보다는 팬데믹의 일부분이라는 점이다. 인플레이션 극복은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의 정상화와 근로자의 일자리 복귀 속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 에서 민여권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수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력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매스주 테스트앤드스테이 프로그램, 학부모 학교 모두 만족

밀접접촉 학생들 매일 감염검사 후 학교 등교 가능
WSJ, 조지아주에서도 실시 등 전국적 확산 될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웨스트포드 학군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A군 부모는 최근 주말 학교간호사로부터 아들이 양성화 진자와 밀접접촉자(Close contact)로 밝혀졌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무조건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던 과거와 달리 테스트앤드스테이(test and stay)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다.

매일 아침 15분만에 판별되는 급성 테스트를 통해 음성으로 밝혀지면 학교에 등교할 수 있으며, 만약 양성인 경우에만 집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A군은 4일간 매일 아침 테스트 후 음성판정서를 받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다. 아침에 감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아예 등교조차 못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큰 진전이었다.

매사추세츠 교육부에 따르면 테스트앤드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격리 대신에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시간이 8만5천여 시간에 달한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교육부는 학부모들을 비롯한

학교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으며 전역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10월 중순까지 2,200여개가 넘는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10월 17일 1,410여개 학교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10월 12일 학교들의 감염검사를 돕기 위해 200여 주 방위군을 투입시키는 노력까지 기울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에 시작됐으나 인력부족으로 순조롭게 출발하지는 못했다. 충분한 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다 보니 많은 학교들의 요구를 따라 잡지 못한 것이다.

테스트앤드스테이 프로그램이 간단한 해결책이자 큰 성공으로 자리잡으면서 미 질병통제센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승인해서 권장을 고려하고 있다. 로셀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이 프로그램을 “학교를 위한 유망한 새로운 전략”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의 15일 보도

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 매리어타 시티 학군의 그랜트 리베리아 교육감은 “테스트앤드스테이는 집단적으로 안도의 한숨이었다. 가족이나 학교 스태프들에게는 아무런 다른 선택지가 없었는데 하나의 선택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학교 감염검사 프로그램의 설치를 위해 건강전문가들, 학교들과 협업하고 있는 락커펠러 재단의 코로나대응및회복의 앤드류 스윗 매니징디렉터는 “이것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라고 강조했다.

테스트앤드스테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학생들은 매일 또는 격일로 감염검사를 받으며 음성인 경우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현재 CDC 지침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학생이 밀접접촉자로 밝혀질 경우 14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또는 감염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후 7-10일 사이에 학교에 복귀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성확진자에게 밀접접촉한 후 5-7일 사이에 감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hsb@bostonkorea.com



사슴과의 충돌, 매스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가을철 운전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도로에 뛰어드는 사슴이다. 사슴의 발정기는 11월 말까지 이어지며 짝을 찾기 위해 사슴들이 도로를 비롯해 이곳 저곳에 출몰한다.

이 짝짓기 시즌에 사슴들은 아침과 해질녘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도로로 뛰어 들 가능성도 가장 높다. 한해 동안 충돌사고가 가장 잦은 때가 지금이다.

특히 4시 반경이면 어두워지면서 운전자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환경이 조성된다. 매사추세츠 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사슴충돌 사고는 81%가 11월 짝짓기 시기 어두워질 때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리플에이(AAA)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10월에서 12월까지 매사추세츠에서 매 2시간마다 한번 씩 사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총 1,402차례 사고가 발생했고 대부분이 6시부터 8시 사이이며 서머타임 이후에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였다.

특히 우스터 카운티에서 가장 많은 사슴충돌 사고가 일어났으며 타운별로는 웨스트포트(Westport)에서 가장 많은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매사추세츠야생동물부는 “발정기 동안에 사슴들은 잠자는 습관을 버리고 짝을 찾아 돌아다닌다. 사슴은 이시기에 정신이 분산되어 있으며 주의력이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차량 충돌사고가 급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By County

- Worcester : 248
- Bristol : 194
- Plymouth : 192
- Middlesex : 184
- Essex : 125

By Community

- Westport : 24
- Andover : 21
- Middleborough : 18
- New Bedford : 17
- Plymouth, Bellingham (tie) : 16
- Freetown, Winchendon (tie) : 15
- Sherborn : 14

hsb@bostonkorea.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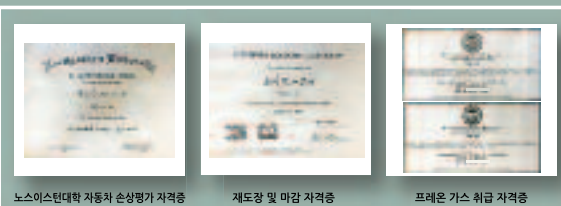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공복 요가와 매일 운동 10분으로 날씬해지자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너무 바빠서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루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10분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아침을 상쾌하고 건강하게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검색창에서 '요가 읽어주는 여자 hayeon' 을 검색하신 후, 최근 영상에서 10분 모닝 요가 편을 찾아 따라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설정도 꼭 함께 해주세요! (매주 짧은 영상과 1시간 라이브 수업 풀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첫번째 자세는 Triangle Pose(삼각자세)입니다. 허벅지 뒷면(햄스트링)과 안쪽, 그리고 어깨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전신 스트레칭 동작이에요.

STEP 1. 오른 발을 앞에 둔 선 자세에서 오른발을 펴고 오른 손을 오른발이 있는 곳으로 가져옵니다.



STEP 2. 왼손은 어깨 위 천정 쪽으로 뻗고 동시에 복부를 수축하며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주의! 오른 발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고 왼무릎은 살짝 구부러 과신전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STEP 4. 3-5회 호흡 후 천천히 무릎 구부리며 올라오고 반대쪽 준비해주세요.

두번째 자세는 Pyramid Pose(피라미드)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짧아지고 타이트해지기 쉬운 햄스트링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에요.



STEP 1. 이번엔 몸을 정면을 향해 왼발을 앞에 두고 오른발을 뒤로 가져옵니다.

STEP 2. 두손으로 엉덩이를 잡고 서혜부부터 천천히 힙 힙으로 내려갑니다.

주의! 등이 굽지 않도록 허리를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하고 두 엉덩이를 평행으로 맞춰주세요.

STEP 3. 엉덩이를 뒤로 보내고 가슴을 앞으로 보낸 상태에서 잠시 홀딩해 보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가슴을 허벅지 가까이 가져옵니다.

STEP 4. 3-5회 호흡 후 다리를 바꿔 반복해 줍니다.

세번째 자세는 Twisted Triangle Pose입니다. 코어의 힘을 기르고 허리와 옆구리라인을 날씬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STEP 1. 앞의 피라미드 자세에서 천천히 몸을 왼쪽으로 트위스트합니다.



STEP 2. 오른손으로 왼발 혹은 발목을 잡고 왼손을 천정 쪽으로 뻗어줍니다.

주의! 배꼽을 등쪽으로 강하게 수축하고 몸통을 비틀어주세요.

STEP 4. 왼쪽 오른쪽 골반의 정렬을 맞추고, 발꿈치 뒤를 강하게 눌러 중심을 잡고 깊게 호흡합니다.

유튜브도 좋지만 라이브 온라인 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 교정도 받고 싶다면?

하연샘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라이브 ZOOM 무료 수업 체험

현재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 요가 & 필라테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건강과 아름다움, 자신감과 긍정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이니 1회 무료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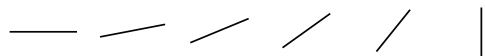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3분기 서민 아닌 투자자들 주택구입 640억달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 3분기 동안 미국내 전체 판매된 가정 주택의 18.2%는 서민들이 아닌 투자자들의 손에 들어갔다고 비즈니스저널이 1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애틀 소재 레드핀을 인용해 3분기 동안 총 6백36억달러에 달하는 9만215채의 집을 부동산투자자들이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활발한 투자자의 주택 구입은 2분기에 비해 10.1% 상승한 것이며 1년 전에 비해 무려 80.2%나 상승한 것이다.

레드핀은 개인이 아닌 사업체나 기관이 사들인 모든 일반 가정 주택을 투자자의 구매로 간주했다. 레드핀의 수석 경제학자 대릴 페어웨더에 따르면 이번 자료로서는 이것이 기관 투자자들에 의한 구매인지 소규모 부동산업체의 구매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세컨홈의 구매 추세는 증가 중에 있다고만 지적했다.

투자자들은 평균 주택당 \$438,770에 구매했으며 구매한 투자자들은 76.8%가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다.

주택 투자 선호지로는 여전히 선벨트(Sunbelt) 주들이 위치한 남쪽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애틀란타의 경우 전체 팔린 주택의 3분의 1이 투자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레드핀의 자료에 따르면 애틀란타 지역의 1년 전 투자자 구매는 12.9%였으나 올해는 32%로 늘어

거의 300% 상승을 보였다.

선벨트를 제외한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 지역은 아이다호 주의 보이스 매트로지역이었다.

투자자들이 구입한 주택의 74%는 단독주택이었으며 다시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전까지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전통적으로 단독주택의 렌트는 전체 시장의 30-36% 정도를 차지해왔다. 현재는 전국 평균 33%대이다. 단독주택의 렌트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의 활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에 소재한 코어로직사가 이번 주 발표한 단독주택렌트인덱스에 따르면 9월 미 전역에서 단독 주택 렌트비는 10.2%가 인상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전년 대비 2.6% 인상됐던 것의 5배에 가깝다.

코어로직의 연구에 따르면 고가의 렌트일 수록 인상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인상율의 차이다.

저가렌트(지역 중위가 75%미만) 지난해 2.4% 대비 8.3% 인상

중저가렌트(지역 중위가 75-100%) 지난해 2.3%에서 9.3% 인상

중고가렌트(지역 중위가 100-125%) 지난해 2.4%에서 10.5% 인상



고가렌트(지역 중위가 125% 이상) 지난해 2.8%에서 11% 인상

대부분의 단독주택 렌트는 주로 주택구매 경쟁에서 밀려난 단독주택 거주를 원하는 가족들에 의해 인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렌트비 인상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주택 구입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수익달러의 자금으로 무장된 기관 그룹들이 올해 새

로운 단독주택 렌트 플랫폼을 시작하고 있으며 점차 그 포트폴리오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주택 렌트 점유율은 95.15%로 25년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페어웨더는 내년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도 점차 약화되겠지만 동시에 전체적인 주택시장 경기도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할 일 많아"...백악관 차기 대권 견제설 일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때 이른 차기 대권 구도 부상에 따른 백악관 내 견제설을 진화하고 나섰다.

해리스 부통령은 18일(현지시간)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스스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해낸 일들에 대해 매우 고무돼 있다"며 견제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도 매우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지인들까지도 자신의 축소된 입지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몇 달간의 노력 끝에 인프라법안에 마침내

서명했다. 나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전국을 돌아다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의회를 포함, 전국민을 규합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물었고, 이것이 그 결과물"이라며 "우리는 일이 되게 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집권 1년 차를 넘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함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등 차기 주자들의 행보에 시선을 보내고 있다.

CNN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백악관 내부에서 2024년 대권 행보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노골적 견제가 시작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대통령의 조력자로서 굵은일을 도맡는 부통령 자리의 특성상 해리스 부통령에게 빛이 나지 않는 일들이 돌아가기는 하지만, 인프라 예산 처리를 비롯한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배제된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주변에 불만이 팽배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통령 대변인은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언론 일부가 대통령과 부통령이 이뤄낸 성과가 아니라 소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재선 의지를 밝혔지만 78세

의 고령 탓에 재출마를 하겠느냐는 의구심도 받고 있다.

그녀는 바이든 대통령과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자신과 대통령은 인프라법안을 포함해 국가 안보를 비롯한 다

른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년 대선 문제에 대한 토론이 없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절대 아니다"라고만 했다. [.kyunghee@yna.co.kr](mailto:kyunghee@yna.co.kr)

CVS, 900개 매장 폐쇄 결정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최대 약국체인 CVS헬스는 18일(현지시간) 앞으로 3년에 걸쳐 900개 매장의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폐쇄 대상은 미국 내 전체 매장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구매를 늘리는 미국인들의 최근 소비 경향에 적응하는 조치라고 CNBC방송은 분석했다.

CVS헬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성장을 위한 노력에 더욱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내년 봄부터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매장 폐쇄에 착수해 매년 300개씩 문을 닫는다.

대신 CVS헬스는 남은 오프라인 매장 중 일부를 독감 예방접종부터 진단검사, 건강검진, 치료,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의료 허브'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의료 허브' 외에 1차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처방약과 생활용품을 파는 기존 약국 등 매장을 3종류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CVS는 "회사 측은 인구 구성과 소비자 구매 패턴, 미래 의료 수요 변화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에 위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도 내년 1월에 10개 점포의 추가 폐쇄를 발표하겠다고 이날 예고했다.

이는 오는 2023년까지 125개 오프라인 백화점을 닫겠다는 기존 계획을 확대한 것이다.



신신마트 당일배송



싱싱한 스시, 사시미 배달
즉석 김밥, 홈메이드 만두 등
당일 배송 가능



배달 서비스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터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터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뉴욕 주에서 한 주민이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는 모습

미 코로나 확진자 계속 상승세… 부스터샷 확대하는 주도 늘어

사흘째 하루 평균 신규확진 8만명 넘어...이칸소도 모든 성인에 부스터샷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겨울철로 접어든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를 2주 전보다 14% 증가한 8만4천863명으로 16일 집계했다.

이는 지난달 14일의 8만6천297명 이후약한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에서는 지난여름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이 무섭게 번졌다가 하향세로 돌아선 뒤 10월 하순부터는 3주

넘게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7만명 선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3일부터 하루 8만명 이상으로 올라섰다.

다만 통상 확진자 추이를 뒤따르는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는 2주 전보다 5% 감소한 4만7천119명, 사망자는 14% 줄어든 1천129명으로 여전히 감소를 보였다.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올해 겨울에도 지난해 겨울 때처럼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 이것이 현실화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서주(州) 정부들은 백신 부스터샷(추가접종) 자격을 확대하고 있다.

애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15
일 주 보건국에 모든 성인에게 부스
터샷을 맞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지
침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
다.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 당국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이면 장기 요양시설에 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등 고위험군에만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고했다.

허친슨 주지사의 지시는 연방정부의 권고를 넘어 모든 18세 이상 성

인이 부스터샷을 맞도록 범위를 넓
히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칸소주 보건국은 부스터샷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의사

들에게 성인 전체에 부스터샷을 맞혀도 된다고 권고하기로 했다.

sisyphe@yna.co.kr

"애플, 이르면 2025년 완전 자율 주행 전기차 내놓을 듯"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이르면 2025년께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에 다시 초점을 맞춰 전기차를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14년부터 일명 '애플카' 사업을 추진하는 특별 프로젝트 팀인 '프로젝트 타이탄'을 운영해왔다.

이 팀은 최근 몇 년간 조향·가속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자율주행차 모델과 아예 사람의 조작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버전을 동시에 탐색해왔다.

그런데 새로운 팀장인 애플워치 소프트웨어 부문 임원 케빈 린치의 지휘 아래에서 완전 자율주행 옵션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전까지 이 팀을 이끌던 더그 필드는 지난 9월 포드자동차로 이적했다.

특히 애플은 최근 자율주행 시스템을 뒷받침할 칩(반도체)을 개발하는 주요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애플카에 탑재될 이 프로세서 개발의 핵심적 작업이 상당 부분 완료됐다는 것이다.

이 애플가 칩은 아이폰과 맥 등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인 '애플 실리콘' 개발팀이 설계한 것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조율하는 작업도 이미 이뤄졌다.

이 칩은 또 자율주행을 관장하는 인공지능(AI)을 처리할 뉴럴 프로세서로 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애플은 곧 도로 테스트에 나설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 따르면 애플은 자율주행 실험용 렉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6대 보유하고 있다.

애플은 내부적으로 5~7년 뒤로 잡았던 개발 일정을 앞당겨 4년 뒤인 2025년 자율주행차를 출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이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이라면서 이 목표를 맞추지 못할 경우 출시 일정을 연기하거나 미흡한 자율주행 능력을 갖춘 전기차를 내놓을 수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반면 목표를 달성하면 애플카에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고, 차량 실내는 이런 특성에 맞춰 설계될 전망이다. 다만 비상시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드를 장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애플이 논의한 옵션 중 하나는 리무진 차량처럼 승객들이 차량 양옆의 좌석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는 형태다.

A hand holding a small bottle of blue liquid, likely a disinfectant or sanitizer, against a blue background. The bottle has a white cap and a small label. The hand is positioned as if about to spray or dispense the liquid. The background is a solid light blue color.

전기차는 윤리적 소비?...당신이 몰랐던 코발트의 진실

아프리카 주민 노동 착취로 배터리 핵심 소재 코발트 채굴
중업체가 현지 코발트 광산 장악..."식민지 노예 같은 대우"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회사원 한모(41·서울 마포구) 씨는 최근 5천만 원대 전기차를 구매했다.

그동안 휘발유 차량을 이용했지만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는 보도를 많이 접한 데다 지구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어 전기차로 갈아탔다.

한 씨는 "아직 충전소가 많이 없어 다소 불편하지만 기능이나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나의 선택이 지구 환경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긍심까지 느낄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 씨 같은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블룸버그 NEF는 전세계 전기차 수요가 올해 330만대에서 2040년 6천600만대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수요가 급증한 광물이 있다. 코발트다.

푸른 회색빛이 도는 금속 광물 코발트는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다.

그런데 전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의 코발트 광산 채굴권을 중국 업체들이 장악하면서 '노예 노동'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DR콩고에 전세계 코발트 50% 매장..."중업체, 현지 주민 노동착취"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5달러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빈국 DR콩고에는 전세계 코발

트 매장량의 50%가량이 매장돼 있다. 생산량 기준으로는 70%나 된다.

친환경 바람을 타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최근 수년 간 코발트 가격은 크게 올랐다.

19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현재 코발트 가격은 t당 6만1천2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때 3만1천95달러보다 91.3%나 급등했다.

주요 선진국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코발트 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발트에 대한 수요가 2050년까지 585%나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의장국인 영국은 2030년까지 휘발유·디젤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고,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내연기관 차량 퇴출 시점을 2025년으로 정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초기부터 대(對)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해왔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코발트 최대 매장지인 DR콩고에 주목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DR콩고의 코발트 광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DR콩고 최대 코발트 광산 중 하나인 텐게 풍구루메 광산은 중국의 광물기업 몰리브덴이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다.

몰리브덴은 풍구루메 광산에 이어 최근 키산푸의 구리·코발트 매장지 지분 95%를 사들였다.

가디언은 그러나 중국 기업이 장악한 DR콩고의 코발트 광산에서 마치 식민지 시대의 노예노동을 방불케 하는 심각한 노동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텐게 풍구루메 광산에서 일하는 피에르(가명)는 하루 3.5달러(약 4천100원)를 받고 일한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점심은 작은 롤빵 두 개와 주스 한 팩이 전부다.

적도를 관통하는 피악벨 아래서 종일 원석을 캐는 피에르는 "일하는 환경은 나쁘고 월급은 아주 적다"며 "아파서 하루라도 쉬면 이마저도 깎인다"고 말했다.

전기차용 배터리에 필요한 차세대 광물로 전세계가 필요로 하는 코발트를 얻기 위해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피에르는 정작 전기차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에게는 테슬라나 르노, 볼보 같은 세계적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이름도 딴 세상일일 뿐이다. 주요 선진국이 '깨끗한 미래 산업'으로 치켜세우는 전기차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 시급 30펜스(약 48원)를 받고 코발트를 캐 뿐이다.

영국의 기업활동 감시 비영리기구(NGO)인 '개발의 권리와 책임'(RAID)은 이달 7일(현지시간) 발간한 8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DR콩고의 코발트 광산에서 식민지 시대를 연상시키는 노동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RAID와 DR콩고 법률법률센터는 28개월에 걸쳐 DR콩고 내 5대 광

산에서 일하는 노동자 130여 명을 인터뷰했다.

RAID의 안네케 판 부텐베르크 이사는 "코발트 채굴이 친환경적이라는 업계 주장과 달리 이 산업은 값싼 노동력과 수천 명 콩고인들의 착취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자원부국 DR콩고, 식민지 시기엔 벨기에 착취에 시달려

지금은 현지 코발트 광산을 장악한 중국 업체의 노동 착취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 자원부국인 DR콩고에 대한 서구 열강의 착취는 뿌리가 깊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1835~1909년)다.

벨기에 초대 국왕인 레오폴드 1세의 차남인 그는 1884년 개최된 베를린회의를 통해 오늘날 DR콩고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뒤 '콩고자유국'으로 이름을 고쳐 자신의 사유 영지화했다.

콩고자유국에 대한 레오폴드 2세의 식민 통치는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때마침 유럽과 미국에서 규모가 커지던 자동차 산업에 주목한 레오폴드 2세는 콩고가 자동차 타이어 생산에 필수적인 고무나무 주산지란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콩고 주민들에게 하루 고무 채취량을 강제로 할당했으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손목을 자르는 방식을 적용했다.

여자나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방식으로 손목 또는 발목이 잘리거나 살해당한 콩고 주민만 수백만 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레오폴드 2세의 잔인한 식민통치 방식은 당시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확보를 놓고 경쟁 관계였던 영국의 현지 파견 선교사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셜록 홈즈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은 1909년에 발표한 '콩고의 범죄'(The Crime of the Congo)란 저서를 통해 '레오폴드가 식민지인 콩고에서 역사상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벨기에의 폭압적 식민통치로 인한 피해가 워낙 컸던 터라 DR콩고는 1960년 독립한 뒤에도 정상적인 국가로 쉽게 자리잡지 못하고 반복된 내전과 쿠데타에 시달렸다.

자동차 산업 확장기에 주요 고무 생산국이란 이유로 가혹한 식민 착취를 당했던 DR콩고가 최근에는 친환경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코발트 최대 생산국이란 이유로 또다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다.

코발트 최대 생산국으로서 DR콩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3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정상회의에는 펠릭스 치세케디 DR콩고 대통령이 특별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DR콩고의 코발트 채굴산업을 중국이 장악하면서 국제 코발트 가격이 급등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데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지만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사슬에 가려진 아프리카의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NOV. 19th - NOV. 25th, 2021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hmart_ma

GET READY TO FEAST! HOLIDAY SPECIAL SALES ARE HERE!

'Tis the season for holiday feasts! H Mart is your #1 holiday helper! Bring new ideas to your Thanksgiving today! H 마트와 함께 추수감사절 연휴를 준비하세요!

H 마트와 함께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썬 골드 키위 BOX \$24.99	KOSHNI ROSHNI Peanut 로시니 땅콩 56 OZ PKG \$5.99	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ILKEN/SOFT/FIRM 14-16 OZ/PKG \$1.29	California Persimmon 캘리포니아 단감 BOX \$17.99	Fuji Apple 후지사과 PREMIUM QUALITY LB \$1.49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2.49	White Cabbage 페르시아인 오이 2\$5 14 OZ/ FOR PKG	Idaho Potato 아이다호 감자 LB \$0.79	Kabocha 단호박 LB \$0.99	Satsuma Mandarin with Leaf 잎달린 사수마 만다린 LB \$2.49

신 선 한 정 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U.S.D.A. CHOICE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U.S.D.A. CHOICE Marinated Beef Short Ribs 양념 LA갈비 LA STYLE/LB \$16.99
Fresh Pork Single Belly Chunk 수육용 생삼겹살 LB \$7.99	Fresh Chicken 생 통닭 WHOLE LB \$1.99
Frozen Patella Bone 냉동 도가니 LB \$1.49	Sliced Smoked Duck 훈제오리 LB \$17.99

싱 싱 한 수 산 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ozen Tiger Prawns 냉동 자연산 타이거 새우 U/10 - LB \$9.99	Frozen Ilex Squid 냉동 오징어 400 UP LB \$3.99
SUHYUP Dried Anchovy 가장수협 다시멸치 10.58 OZ /PKG \$8.99	Frozen Scallop 냉동 스칼럽 10-20'S LB \$13.99
NEXT WAVE Frozen Mussels 냉동 토마토 & 갈릭버터 혼합 TOMATO AND GARLIC BUTTER SAUCE 1 LB/PKG \$2.99	Fresh Sheephead shiphead LB \$1.99

SMART CARD MEMBER ONLY

H MART SMART CARD ONLY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쌀 15 LB \$12.99	H MART SMART CARD ONLY SEMPIO Rice Noodles 샘표 쌀소면 1.76 LB \$4.99
H MART SMART CARD ONLY NEOGURI Nongshim Neoguri (Udon Type Noodles) 농심 너구리 4.2 OZ X 16 EA/BOX \$14.99	H MART SMART CARD ONLY DONGWON Canned Luncheon Meat 동원 런천미트 12 OZ \$2.99

ORGANIC FARM Organic Premium Short Grain Rice 유기농장 유기농쌀 USDA ORGANIC \$32.99 15 LB	ARIZONA FARM Honey Powder 아리조나팜 허니 파우더 1 LB \$1.99	HOUSE FOODS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 MILD/MED. HOT/HOT - 8.11 OZ \$2.99	DONGWON Canned Tuna 동원 참치 통조림 LIGHT STANDARD 5.29 OZ X 4 CANS/PKG \$8.99	HORMEL FOOD Spam 스팸 25% LESS SODIUM /LITE 12 OZ \$2.99
CHORIP DONG Dumpling Wrapper 초립동이 만두피 14 OZ \$2.49	NIPPONHAM Karaage Chicken 니폰햄 카라아게 치킨 12 OZ \$5.99	HAIO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빛 굴비 2.5 LB \$14.99	DURIDAM Mosiäll Ramie Ingeolmi Rice Cake 두리담 영광모시인절미 2.2 LB \$12.99	CROWN Choco/White Heim Snack 크라운 초코/ 화이트하임 10.02 OZ \$3.99
HAITAI Matdongsan Peanut Crunch 해태 맛동산 10.58 OZ \$3.99	CHORIP DONG Honey Citron Tea 초립동이 유자차 2.2 LB \$4.99	KÜHAUS Fan Style Ceramic Heater 쿠하우스 선풍기형 세라믹 히터 WHITE/EA \$53.99 \$89.99 EA	KÜHAUS Cool Mist Humidifier 쿠하우스 쿨미스트 가습기 4L/TRANSPARENT \$38.99 \$64.99 EA	HELLO HOME Pot 헬로홈 에코텍 시리즈 양수 냄비 26 CM PINK/BLUE EA \$26.99 \$44.99 28 CM PINK/BLUE EA \$29.99 \$49.99

FRESH SLICED RICE CAKES

Freshly Made Today. Try it Now!
10 times chewier, 100% natural ingredients, produced daily.
10배 이상 쫄깃한 식감.
100% 천연재료, 매일 생산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애나 정
617.780.1675
Boston Branch Manager
anna@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 제 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박 성 종
617.304.7001
Director & manager of Newton branch
sj@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이 준 군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최 진 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 성 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Rick Shin
781.530.0034
ricks@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콥 신 617.710.8836
jacob@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이 영 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송 문 주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한 혜 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황 수 진
617.538.6973
sujinhwang1@gmail.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샬리 임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
 Mr. M. Malden, MA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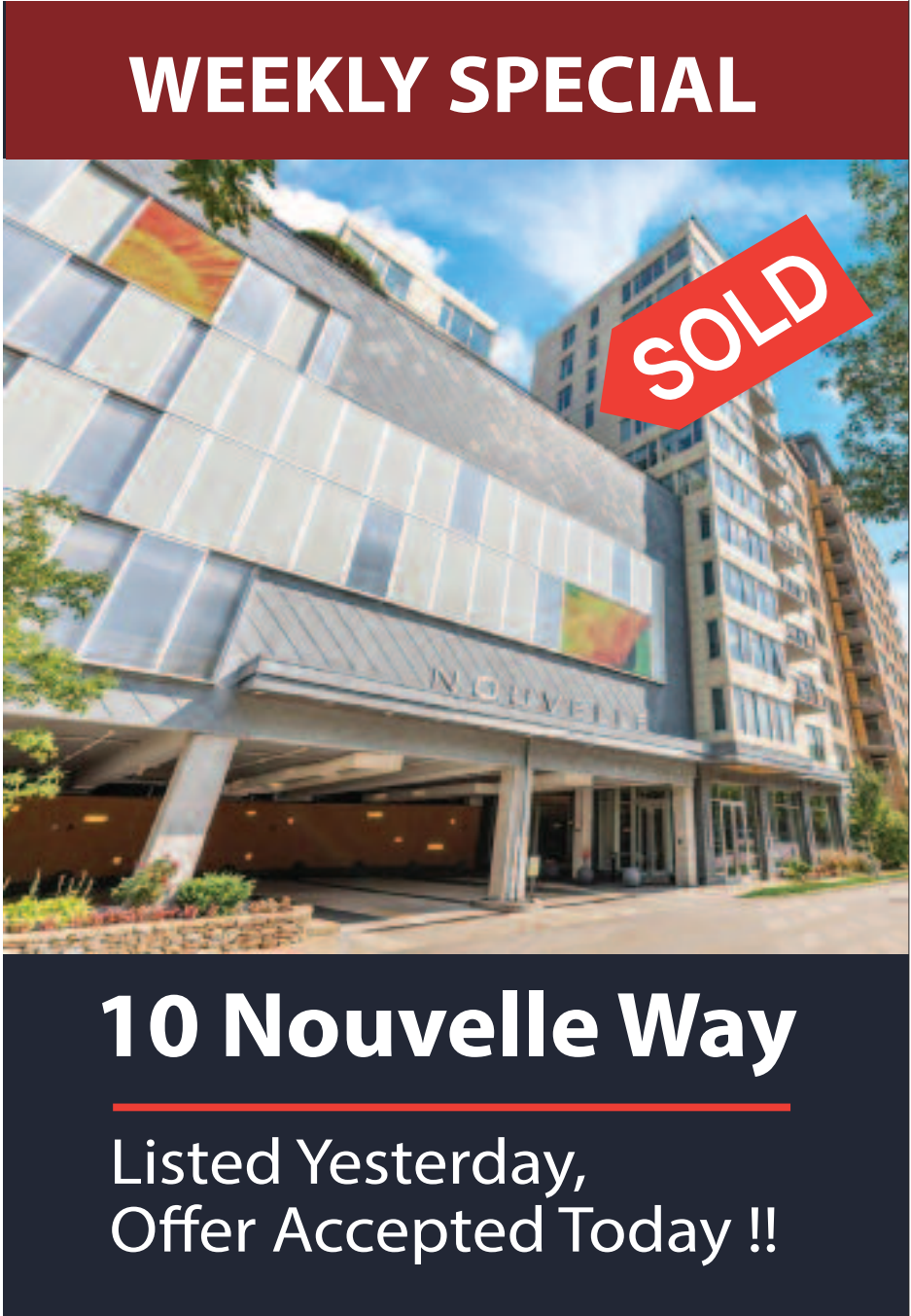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SOLD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40주년 기념 특별 할인

양/은/늘/리/고

가격은 **화!**
내렸습니다.

Unbeatable Price!



NOV. 19th부터
재고 소진
까지!

LIMIT
1EA

REG. \$17.99

다신 없을 가격!
2 LB에서 3 LB로

SIZE UP!

\$8.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세요, 켈리 김입니다. 개인주택을 꿈꾸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여러 상황 때문에 개인주택 소유의 꿈을 접기도 합니다. 20년간 겪어온 많은 모기지 대출 경험으로 완벽한 대출매칭을 설계해 드립니다.

현금 인출

낮은 이자율

모기지 재 융자

사전 승인

후회없는 최상의 결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상담 및 신속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
617.733.5014

Testimonial

투자용 주택 구입을 위해 융자 받을 곳을 알아보느라 몇 군데의 모기지 에이전트들과 통화했고 상담했었습니다. 이유는 주변에 융자가 나오지 않아서 고생했던 분의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모기지 회사나 은행을 정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자율도 비교해보라는 리얼터분의 조언에 따라 여러 군데 연락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켈리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켈리씨는 저희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융자 상품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융자 금액보다 좀 더 많은 융자금을 받도록 해주셔서 좀 더 수익이 많이 나는 큰 매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 맞춤 서비스가 편했습니다. 밤늦은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1시간이 넘도록 상담해 주셨고 이후에 서류를 준비 해야할 때에도 준비할 때마다 생기는 수많은 질문에도 늘 빠르게 답 해주시고 문자 주시는 등 밤늦도록 저를 위해 일해주시는 모습에 신뢰가 쌓였습니다. 융자 받을때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하고 갑자기 필요한 서류가 생겨서 걱정스러웠던 예전 경험에 비해 이번엔 정말 수월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할 수 있었습니다. 켈리님의 능숙한 업무 처리 능력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융자 받으실 일이 있으시면 저희처럼 Ridus의 켈리 님과 함께 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Julie Jun
Boston Premier Realty
978.494.2043

저와 남편은 노후 대책으로 월세받을 집을 언젠간 구입하려고 생각만 하다가, 요즘 이자가 낮으니 좋은 찬스라는 리얼터 줄리 전님의 추천으로 앞으로 집값 오르고, 렌트가 잘 나간다는 동네에 오픈하우스 다니기 시작한지 두달만에 결국 원하던 멀티 하우스를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서 클로징 끝나고 몇주 후에 바로 렌트비도 받았는데, 늘 노후대책 걱정만 하던 제가 하나의 숙제를 해결했다는 안도감에 기뻐했습니다. 리얼터 줄리씨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빨리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리얼터님을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었던건 줄리씨가 저희에게 그동안 보여준 신뢰와 실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6년전 저희 첫집을 구입할때도 얼마나 성실히 잘 도와주셨는지 집에 대해 하나도 모르던 저희에게 차근차근 모든 설명을 다해줬으며, 집값 오를만한 지역을 골라줘서 다들 저희 집 좋은 가격에 잘 샀다고 한답니다. 집 구입 이후에도 시시때때마다 집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고, 급하게 수리할게 생겼을때에도 연락하면 바로 일잘하는 핸디맨도 소개해주십니다. 저희 집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잘 알고 있는 든든한 저희집 담당 리얼터입니다. 자주 연락드려서 귀찮아 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지만 늘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 받아주어서 통화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죠. 집에 관해선 모든걸 맡아서 해주시니 집 관련 해서는 걱정이 없네요. 리얼터 줄리님과의 좋은 인연이 저희의 노후대책까지 준비되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켈리 김 Licensed in MA, NH, RI, FL, NJ
Kellie Kim Thielen
주택대출 전문가
nmls #2027241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 식당 온라인 오더와 온라인 페이먼트를 한자리에서 해결
- 헤어와 네일 살롱의 온라인 예약과 온라인 페이먼트를 컴퓨터로
- 다양한 옵션을 완비한 디펜더블 컴퓨터로 간단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살롱
온라인 음식 주문과 지불 epipay™	온라인 예약 관리 epiday™
온라인 매장 관리	온라인 매장 관리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GIFT CARD 프로그램	GIFT CARD 프로그램
종업원 관리	종업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애프터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Dependable Computer is an authorized independent reseller of United POS Solutions, Inc."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thony (Dumey) Parish Korean Churc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16Zd7>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58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adparishchurch.org
www.facebook.com/stadparish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령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피루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장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5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골프 레슨

US 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

최성조 프로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Master Golf Professional

857.600.6755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백신을 접종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무료 코로나-19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신분증, 건강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백진접종장소를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으세요
[MASS.GOV/COVIDVACCINE](https://mass.gov/covidvac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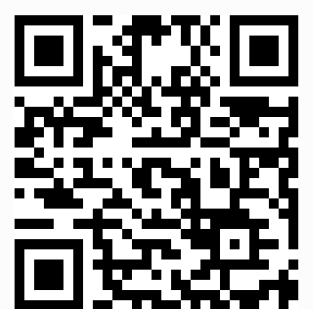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Eastern Bank

JOIN US FOR GOOD[®]



VaxFinder



매사추세츠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SOCIETY OF MASSACHUSETTS

한동포 한마당
사랑 나누기

매사추세츠
한인단결, 한마당 !!

2021

겨울의 밤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신나는 디너쇼 !!**



MC 탈랜트
이정성



이미자 모창
가수 오령



가요계 디바
신나라



견아들 출신
이창완

입장권, 라플 추첨 와곤안 경품 대잔치 !!

고국방문 왕복 비행기표 **2장** 김치냉장고 최신 65" TV
다양한 상품들.. 재미있는 게임 **댄스, 댄스, 댄스파티 ~**

“ 행사장 입구에서 백신 접종 카드를 확인 합니다. ”

CROWNE PLAZA WOBURN Grand Ballroom
15 Middlesex Canal Park, Woburn, MA 01801
2021년 12월 18일 (토) 저녁 6시 - 11시

입장권 (\$ 100) 구입 과 후원 상담
한인회 : 978-807-1622 / 978-461-2424
서부지역 : 646-220-3314
이메일 : masskorean2021@gmail.com

후원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연합뉴스 보스턴코리아 BOSTONKOREA.COM	후원 (행사장입구 Photo Zone 운영)  미동북부 한인연합회, 보스턴 연미노인회, 보스턴 국제가정연교원 “ 행사 와 나눔을 위한 후원 받습니다. ” 978-807-1622 / 978-461-2424
--	--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60) 주식 투자 정보와 지식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소중한 돈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35년 동안 항상 생각했던 것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 금리와 주가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 전체 주식 시장의 과대평가 여부
- 어떤 개별 종목이 시장을 이끌 것인가
- 어떤 펀드 매니저가 어떤 펀드 매니저를 능가할 것인가
- 물가 상승과 주식시장 관계는
- 정치와 경제 방향은
- 어떤 주식 시장 부문과 국가 주식 시장이 가장 잘 될 것인가?

이러한 정보와 지식은 필자가 하는 투자 전략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더라면 포트폴리오 성능이 더 좋아졌을 것이며,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낭비하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안다고 생각하고 알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월가와 금융 미디어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금융미디어는 방송 시간, 웹사이트, 인쇄된 페이지를 채울 필요가 있다. 월스트리트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확신시키고자 한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본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의 실수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투자에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투자의 실수로 이어지게 한다. 우리의 자만감, 대박의 꿈, 최근의 편견, 운이 좋아 잘된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 남 따라서 하는 투자, 등이 투자 행동적 실수로 이어지게 한다. 한마디로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심장에 손을 얹고 예측하고 싶지

않다고 맹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에는 종종 예측이 끼어든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투자를 보류한다. 미국 주식들이 외국 시장을 항상 능가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쪽으로 기울고 있다. 조심스럽게 다각화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투자한 뜨거운(Hot) 주식을 고수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가 변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가가 그것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개별 주식, 다른 시장 부문, 그리고 전체 시장을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나은 예측을 할 것이라는 증거는 분명 없다. 대신, 우리의 최선의 방책은 예측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정보와 지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신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위험 부

담, 투자 비용, 그리고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에 대한 것들이다.

우리는 어떤 빛을 먼저 봐야 하는지, 어떤 집을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주택융자금을 빨리 갚아야 하는지,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원금 보장한다는 투자상품의 진실이 무엇인지,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얼마인지, 아이들 학자금 마련이 무엇인지, 신용 등급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은퇴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계획하고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금융 생활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우리는 신중히 소비하고 열심히 저축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해로운 금융 행동을 바꾸는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투자 예측하고 과감한 투자로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는 거의 항상 엄청난 가격표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2세 풍월주風月主 양도공良圖公(12)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어지는 화랑세기의 기록에는 김양도가 그간 쌓여온 선문(화랑들이 기거하며 심신을 수련하는 곳) 내의 악습을 개혁하는 가운데 일부 화랑도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이 있다. 아울러 양도의 선부仙父(어머니와 색사를 나눈 풍월주)인 김염장의 충고도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선문仙門의 완고하고 사리에 어두운 자들 중에는 전환한다고 생각하여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염장공이 격정을 하여 공에게 지나치게 빨리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공은 직간하여 말하기를 “미생공은 마복자摩腹子가 …인이었는데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부주父主께서는 마복자가 백인이니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했다. 염장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저들이 좋아 요구했으니 또한 가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아, 순리대로 하면 되고 서두르면 물이 샌다.” 고 했다.]

오랫동안 화랑도의 선문에서 이어져 내려오던 관습인 ‘청례와 옥로(청례는 낭두의 딸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서 먼저 화랑의 총애를 받는다는 색사를 의미하고, 옥로는 봉화와 봉옥화를 의미하는데, 봉화라 불리우는 낭두의 딸들이 화랑과 색사를 하면 봉로화라 했

고 화랑의 아이를 임신한 봉화는 봉옥화라 했다)’를 김양도가 풍월주의 위에 오르면서 중지시키는 개혁을 단행하자 일부 화랑도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에 김염장이 서두르지 말고 순리대로 하라고 타이르는 장면이다. 김염장은 17세 풍월주를 역임하였는데 그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치부를 많이 하였다. 그는 16세 풍월주 설보종 밑에서 부제로 있을 때부터 보종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많은 치부를 하였다. 또한 어색漁色을 좋아하였기에 수많은 처첩을 두었고 많은 봉화들과 나눈 색사의 결과로 마복자 또한 백이 넘었다. 또한 염장은 김양도의 어머니 양명공주의 사신私臣으로 공주와 사통하여 아들 장명을 두기도 하였다. 그래서 양도는 그를 부주라고 호칭하였다.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미생은 10세 풍월주를 역임하였고, 또한 미실의 동생이기도한데, 그 역시 호색한인자라 자녀의 수가 백을 넘어 그들의 이름조차 다 기억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이 넘는 자녀들의 숫자에 마복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위의 인용문에서 마복자의 수가 탈자되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다만 미루어 짐작해보건데 친자들의 숫자를 능가하리라 본다. 미생이 어릴 때부터 동륜태자(진흥왕의 장자)와 사륜(진흥왕의 차남으로 후에 진지왕)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나눈 어색의 기록은 화랑세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시에는 많은 상선이나 상량들이 자신이

데리고 살던 첩을 낭두들과 혼인시키기도 하였다. 지아비의 위세를 믿고 기고만장했던 그들은 직급이 낮은 낭두들과 결혼 후에도 과거의 달콤한 권력의 맛을 잊지 못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게 새로운 지아비를 홀대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김염장은 첩들이 아주 많았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상당한 미모와 게다가 자신의 아들(호장曉長과 유장劉長)을 둘이나 낳은 첩 도리道里를 도두都頭(361) 세기世己에게 주어 혼인시켰다. 세기의 처 도리는 12살이나 연상이었는데 오만방자하고 안중무인이라 남편 세기를 노복奴僕과 같이 대하며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폭언과 악행에 심지어 매질까지 하는 망중亡種이나 다름없었다. 그 당시 세기는 이미 첩 세를 데리고 있었는데, 도리의 질투가 극에 달해 첩들은 물론 남편 세기마저 둔기로 폭행하여 낭부郎務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자 소문은 삼시간에 낭문에 퍼졌고 풍월주 김양도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래서 양도는 도리를 잡아 오게하여 선문에서 체벌하려고 했다. 하지만 도리는 선종仙鍾(풍월주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며 자신의 죄를 방어하였다. 그러나 양도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하는 그녀에게 가중처벌로 곤장 여섯대를 치기 위하여 치마를 벗기고 형틀에 묶였다. 그러자 양도의 부인이자 화주花主인 보량이 지위만으로 아래 사람을 다스리다 도리어 염장공에게 불효를 한다면 도리道理가 아니라고 도리

에게 가하려던 체벌의 중지를 간청하였다(김염장은 양도와 부인 보량의 어머니 양명공주의 사신私臣으로 그들 사이에는 장명이란 아들까지 두었다). 하지만 양도는 무리를 다스리려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남편 세기를 불렀다. 남편으로서 처를 바로잡지 못했으니 그 죄값으로 도리를 곤장치는 대신 세기를 도두의 자리에서 파면하여 징계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세기의 처 도리는 울면서 자신이 곤장을 맞을테니 남편을 파면시키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양도는 부부의 의리는 이와 같아야 하니 도리가 남편 세기 섬기기를 자신에게 하는 것같이 한다면 곤장도 면할 것이며 파면도 없을 것이라고 하자, 도리는 풍월주 김양도 앞에서 맹세하고 나서 남편에게 순종하였고 첩들에게도 질투하지 않았다. 이에 모든 낭두들의 처들이 지아비들에게 방자하지 않게 되었기에 낭두들이 서로 기뻐하며 “신주新主의 덕화德化가 안방까지 깊이 미쳤다”며 풍월주 김양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는 낭두들이 없었다고 전한다.

361) 김양도가 낭두의 직급을 개편하여 도두 위에 대도두와 대노두를 더하기까지 도두는 낭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급이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어느 멋진 가을날

민유선(노인호 고문)

바리톤 김형규, 소프라노 배다해 등 유명 성악가들은 “10월 어느 멋진 날” 이라고 유럽의 봄노래를 번안하여 부르기도 하였으나, 저는 이 가을에 제가 겪은 어느 멋진 하루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워낙 사과를 좋아하는 저희 부부는 지난 가을 어느 날, 북부보스톤연합감리교회 어르신들의 모임인 “상록회”가 주관하는 사과 따기 행렬에 동참하였습니다.

날씨는 쾌청, 과일 향기 그윽한 과수원에서 각자 자기몫의 사과를 따고 나니 어느새 점심시간, 준비해온 감밥 한주에도 정성이 가득한 점심을 먹던 중에 느닷없이 상록회 회장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감사장”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집안에 서만 지내다가 이제 겨우 외출이 가능해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뜬금없이 무슨 감사장일까요?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착실히 상록회를 발전시키시는 이기환 회장님과 초창기부터 20여년 이상 상록회에 헌신하신 권한섭 회장님, 그리고 노인회를 위하여 오래 전부터 익명의 후원자로 계시던 전기

운씨가 방문한 자리에서 필자가 감사장을 받는다는 것이 웬지 축스럽고 민망하였습니다만, 얼떨결에 “감사패”를 받아들고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여러해 전, 필자가 보스턴 한미 노인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보스턴 노인회 회장은 보스턴 지역뿐 아니라 뉴잉글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 주의 행사에 참가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필자는 노인대학 건으로 어느날 북부 보스톤감리교회를 처음 방문한 후부터 비교적 자주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거나 존경스러운 어른들을 만날 수 있었음은 저의 행운이었지요.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성경말씀이나 시구절을 줄줄이 외우시던 고(故) 신회숙 권사님은 물론, 90세가 넘은 최근까지도 건강한 자세로 성가대에 서시던 김명숙 권사님 역시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상록회 초대회장 서정섭 권사님을 비롯하여 최덕중 장로님, 박재영 장로님 등 역대 회장님들과 그 임원

들, 굳은 믿음으로 소박하게 살다가 신 김원엽 장로님, 평생 금융인답게 조용한 믿음을 실천하신 김만정 권사님, 여성인권을 존중해주시던 진정한 페미니스트 박기식 선생님, 뇌졸중의 불편함 속에서도 항상 명랑하셨던 조승진 권사님, 후한인품으로 유명하셨던 조순자 권사님과, 기타반주의 달인 주중옥 권사님 외에도 덕성 높은 여러 어른들의 선한 영향력을 제가 어찌 잊으리오.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받은 넘치는 사랑에 보어드린 겨자씨보다 작은 저의 성의가 오늘날 이렇게 크고 귀한 감사패로 되돌아오니 무엇이든지 서로 주고 받는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가!

저와는 각별히 가까이 지내던 Dr. 김 그레이스나 장정문 회장님께서 투병중이라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었던 그날, 따뜻한 다과를 한아름 안고 과수원까지 찾아오신 전기운 선생은 필자가 모 군단의 후송병원에서 근무할 때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사이로서 미국에서 다시 만나 옛 기억을 공유할 수 있으니 더욱 반가웠던 날, 세상은 참으로 넓고도 좁은 것임을 실감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어른)을 소중히 여기고 배워 새로운 지식이나 도리를 습득하고 익힌다는 것을 “온고지신”이라고 하던가.

이승식, 박경숙 권사님 두분 부모의 성품을 닮은 이정수 집사님의 충실한 운전 봉수뿐 아니라 상록회를 위하여 늘 협조를 아끼지 않는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미래를 밝힐 주인공들이라는 생각이 더욱 분명해진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구의 일기 변화화 잦은 자연재해, 코로나19저염병이 창궐하는 중에도 철따라 아름다운 꽃으로 열매로 찾아오는 자연의 질서가 고맙다, 갈라, 하니크리슴 등 잘익은 과일나무 밑 풀숲에 떨어져 뒹구는 붉은 사

과들을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어느 한편에서는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도 많다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과분한 풍요가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두터운 유리벽의 보수 성향이 팽배하던 지역 분위기에서도 최초의 여성 회장인 필자를 지지해 줌은 물론 워싱턴 벚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에 어른들을 모시고 다니던 조영태 한인회장단의 각별했던 경로사상이 새삼스러운데, 서영애 한인회장의 너그러운 후원이 그날의 사과밭에서도 유난히 빛나는 날-2021년 10월 6일- 필자에게는 여러 면으로 잊지 못할 가을의 감사하고도 멋진 하루였습니다.

11월 21일 - 11월 27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흥분한 마음으로

●운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금전적으로 골치 아프게 했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출가분한 마음으로 편히 잠잘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며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3, 25일 길일, 21, 27일 주의.

소띠 | 이해하는 시선으로

●운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경 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입니다. ●금전: 남을 믿고 맡기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수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면 결리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상대에 대해 품은 마음도 관대해지겠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범띠 |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운수: 조금 부족하고 더디게 하는 것같이 보여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금전: 얼마나 느긋하게 잘 참아내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애정: 어찌 보면 자질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행해주는 마음에서 서로 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2, 27일 길일, 21, 23일 주의.

토끼띠 |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운수: 환한 햇살이 나에게 비취주니 밝고 희망적인 활력이 넘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납니다. ●금전: 그동안 애쓴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 만한 좋은 결과가 따라줄 것이다. ●애정: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나타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2, 23일 길일, 21, 24일 주의.

용띠 |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같아 애쓴 보람도 없고 기운이 빠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금전: 바라는 만큼의 수입이 아니라도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세요.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애정: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5일 주의.

양띠 |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운수: 남에게 좋은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은 따로 있으니 다시 찾아보세요. ●금전: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얻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애정: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 보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는 격이 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

말띠 | 남보다 한발 앞서서 움직여야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보다 한발 앞서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에 따라 소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애정: 애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연인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좋을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

개띠 | 생각을 바꿔서 보면

●운수: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전: 매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저런 궁리를 하게 됩니다. ●애정: 한번 꼬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27일 길일, 24, 25일 주의.

돼지띠 | 희망의 끈을

●운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는 망설이지 말고 추진하세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이라도 도전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금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조금씩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 마음이 가다가도 자주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7일 길일, 23, 26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스시맨 풀타임, 파트타임 구합니다.
T. 508-655-3951, 978-494-2712

풀타임 캐셔 구함.
벌링턴몰내 칠리 필리스테이크
T. 781-778-8665(제시)

렉싱턴에 있는 차고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분은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81-859-921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에스파 '광야'로 첫발 댄 지 1년...메타버스 세계에서 3연속 히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악(惡)의 세력 '블랙맘바'(Black Mamba)를 무찌르러 '광야'로 첫발을 내디딘 지 어언 1년. 매년 수많은 신곡이 쏟아지는 가요계에서 짧다면 짧은 기간 3연속 히트를 기록한 신예 걸그룹.

바로 데뷔 1년을 맞은 걸그룹 에스파 이야기다.

17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블랙맘바'로 데뷔한 에스파는 '넥스트 레벨'(Next Level)과 '새비지'(Savage)까지 3곡을 연달아 히트곡 목록에 올리며 성공을 거뒀다.

에스파는 '아바타 X 익스피리언스'(Avatar X Experience)를 표현한 'æ'와 양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스펙트'(aspect)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다.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도입했다.

데뷔곡 '블랙맘바'는 K팝 그룹 데뷔곡 가운데 사상 최단 뮤직비디오 1억뷰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넥스트 레벨'과 '새비지'는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 '톱 100'은 물론 일간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올해 걸그룹이 멜론 일간 차트 1위에 오른 사례는 에스파 외에는 공전의 '역주행 히트'를 기록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뿐이다.

지난달 나온 첫 미니음반 타이틀곡 '새비지'는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서 내려올 기미가 없다. 이 음반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20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이 음반은 발매 15일 만에 51만장이 팔

려나가 하프 밀리언셀러로 등극했다.

걸그룹이 음원과 음반 모두에서 '쌍끌이' 흥행을 거두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에스파의 독보적인 콘셉트는 메타버스(가상세계) 장르를 엔터테인먼트로 확대하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겨냥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전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내달 한국서 세계 최초 개봉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마블의 액션 블록버스터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다음 달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배급사 소니 픽처스는 톰 홀랜드가 주연하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을 12월 15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한다고 17일 밝혔다. 북미에서는 이를 뒤인 17일에 개봉한다.

마블이 제작하고 소니가 배급하는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이다.

정체가 탄로 난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톰 홀랜드 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닥터 스트레인지(베네딕트 컴버배치)의 도움을 받던 중 뜻하지 않게 멀티버스(다중우주)가 열리면서 닥터 옥토퍼스(알프리드 몰리나) 등 각기 다른 차원의 숙적이 나타나며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된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 이어 존 와츠 감독이 연출했다.

mihee@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샌디 한, 그녀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만남, 만남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또한 자주 얼굴을 마주하지 않더라도 그 한 사람에 대한 기억과 추억은 가슴에 남는다. 몇 년 전 한 모임에서 샌디 한(한성경) 동생을 만났다. 모습은 수수하고 수더분한 차림에 눈빛이 맑아 좋았다. 뭐라 할까. 그저 사람을 좋아하고 따뜻한 느낌의 여자였다. 그렇게 만남의 숫자가 더해질수록 편안하고 좋은 사이가 되었다. 같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감리교회의 여성교회 모임(KUMC)에서 서로 일을 맡아 하며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의 만남은 추억을 쌓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시작한 모임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 몇 여자들이 더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언니 동생으로 편안한 만남을 이어갔다. 서로 경쟁하며 이태타산 따지지 않고 성격이 차분한 몇 사람들이 모여 삶의 한 부분을 색칠하게 되었다. 삶의 일상을 편안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말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취미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며 서로의 이

야기보따리를 풀어놓고 화들짝 거리며 지내게 되었다. 우리네 삶이 뭐 그리 특별할 것이 있겠는가. 오늘 하루 감사하면 최고이지 않던가.

지난 11월 7일(일) 저녁 캠브리지의 매사추세츠 예비뉴에서 아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생(샌디 한)이 '하버드홈리스미션'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늘 따뜻한 미소와 성품으로 곁에 좋은 친구와 언니들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고 있으며, 남편의 내조도 잘하고 있어 곁에서 칭찬을 많이 해준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몇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때 많이 힘들어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길을 따라 이처럼 '홈리스 사역'을 감당하는가 싶었다.

'하버드홈리스미션'은 2009년도에 이원경 씨와 한성경(샌디 한)씨가 함께 시작했었다. 그리고 이원경 씨가 2020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제단(하버드홈리스미션)을 만들었다. 하버드홈리스미션은 렉싱턴, 벨링턴, 벨몬트, 앤도버, 노스앤도버, 메뚜윈 등

여러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한국교회 학생들,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부형 봉사자 중 문혜빈 씨가 많은 도움을 주어 함께 일하고 있다. 일주일에 2회 정도를 하고 있으며, 노숙자들과 불우이웃들에게 음식을 담은 사랑의 바구니(care kit)를 만들어 나누고 있다.

무엇보다도 뉴잉글랜드 지역의 11월은 집이 없는 홈리스들에게는 더욱더 추운 겨울이 시작된 것이다. 이날 저녁에도 30여 명의 봉사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양손에 물품들을 들고 큰 물품들은 봉사자 아빠들이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 이불, 재킷, 장갑, 모자, 목도리, 그 외의 물품들을 홈리스들에게 나누고 있었다. 이곳 거리에 추위로 떨고 있는 이들과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 어린 손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차올랐다. 11월 초 저녁 날씨는 쌀쌀했지만, 마음은 훈훈해졌다.

샌디 동생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곁에서들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할까. 그저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무엇이든 처

음 시작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몇 년 전부터 자녀들을 이끌고 함께 하버드 스퀘어와 매사추세츠 예비뉴 등을 돌면서 음식을 나누고 물품을 나누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봉사의 시간을 마련해주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노숙자들과 마주하며 새로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이 모두가 감사라고 고백하고 말았다.

처음에는 샌디 동생의 봉사활동을 보면서 곁에서 가끔 응원의 메시지와 박수를 보내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하버드홈리스미션(HHMI)'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에서 참여를 했다. 무작정 남이 도우니 나도 돕는다는 그런 식의 크리스마스, 이스터 무슨 때가 되어 돕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그저 한 번 돕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제대로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날의 노숙자들과 만나며 나는 HHMI 봉사자가 되었다. 샌디 한, 그녀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화끈한 동이족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인의 기질이라 했다. 장점일수도 있겠다. 명석하고 근면하며 화끈하다. 한편 단점이라면 과격하고 성급하며 지독하다. 고개가 가우뚱해진다. 지독함은 치열함이나 끈기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거다. 성질이 급하긴 해도 은근과 끈기라 하지 않았나 말이다.

한국신문에서 읽었다. 제갈량의 책에 나온다고 했는데 동이(東夷)족을 연구했다. 그대로 옮긴다.

“동이족은 예와 의가 빈약하고 사납고 급한 데다 싸움에 능하다.

산에 의지하고 바다에 접한 천혜의 험지에서 굳게 지킨다. 하지만 이들을 공략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상하가 화목하고 백성이 안락하기 때문이다. ...”

제갈량이 제대로 본 모양인가. 아니면 수천년이 지나도 기질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인가. 성미가 급하다했으니 말이다. 안으로는 화목하고 화끈한데, 적에게는 사납다만 치열하다. 나 역시 이구절에서 뺄터졌다. 예와 의가 빈약하다는 건 중국을 향해 그렇다는 말

일 테니 큰 상관은 없다.

화끈함이라면 방탄소년단 노래가 사 가 떠 오 른 다 . “Dywnnnnanana, life is dynamite.” 지난해 발표 되었다고 했다. “인생은 다이너마이트/ 펑크와 소울로 난 온 도시를 반짝여/ 빛으로 물들일 거야 다이너마이트처럼.” 또한 한국 전통의 풍물놀이 역시 만만치 않다. 풍물놀이는 농사에 따른 수고를 덜고 작업능률을 올린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는데, 여흥오락으로 발전되었다고 했다. 힘든 노동에선 노고(勞苦)를 풀

어야 한다.

덩달아 방탄소년단의 다른 노래가사이다. “우리가 춤추는데 허락은 필요 없다” 이 구절은 광화문 글판에 걸렸는데, 역시 화끈하다. 폭발하는 춤판을 일테고, 흥겨운 풍물놀이인게다. 올해도 풍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풍물놀이가 같이 했으면 한다.

다시 방탄소년단이다. 그들이 유엔에서 연설했다. 대단히 화끈한 사건이라 해야겠는데 던지는 메시지 역시 예사롭지 않다. 끝이 아닌 시작이라 했고, 일상으로 돌

아가자고도 했다. 새로운 시작인바, 소년단이 보내는 화두인게다. 청년들은 이미 유엔에서 연설이 낯설지 않을 텐데, 차라리 격려라 할수 있겠다.

그런데 화끈하지 못한 나는 과연 동이족인가? 하지만 나 역시 한국피를 갖은 건 틀림없다. 명석하지도 근면하지도 않으며 성실하지도 않은데도 말이다. 성미는 급하니 말이다.

소고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 (시편 150:4)

'하버드홈리스미션(HHMI)'에 큰 응원의 박수를 드리며...

신영

지난 11월 7일(일) 저녁 캠프리지의 매사추세츠 예비뉴에서 아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생(샌디 한)이 '하버드홈리스미션'을 맡아 봉사하고 있다. 늘 따뜻한 미소와 성품으로 곁에 좋은 친구와 언니들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고 있으며, 남편의 내조도 잘하고 있어 곁에서 칭찬을 많이 해준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몇 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그때 많이 힘들어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길을 따라 이처럼 '홈리스 사역'을 감당하는가 싶었다.

'하버드홈리스미션'은 2009년도에 이원경 씨와 한성경(샌디 한)씨가 함께 시작했었다. 그리고 이원경 씨가 2020년 1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제단(하버드홈리스미션)을 만들었다. 하버드홈리스미션은 렉싱턴, 벨링턴, 벨몬트, 앤도버, 노스앤도버, 매튜윈 등 여러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한국교회 학생들,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다. 학부형 봉사자 중 문혜빈 씨가 많은 도움을 주어 함께 일하고 있다. 일주일에 2회 정도를 하고 있으며, 노숙자들과 불우이웃들에게 음식을 담은 사랑의 바구니(care kit)를 만들어 나누고 있다. 음식으로는 집에서 직접 만든 홈메이드의 햄버거와 볶음밥, 파스타와 샌드위치 그리고 쿠키와 빵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뉴잉글랜드 지역의 11월은 집이 없는 홈리스들에게는 더욱더 추운 겨울이 시작된다. 이날 저녁에도 30여 명의 봉사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양손에 물품들을 들고 큰 물품들은 봉사자 아빠들이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 이불, 재킷, 장갑, 모자, 목도리, 그 외의 물품들을 홈리스들에게 나누고 있었다. 이곳 거리에 추위로 떨고 있는 이들과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물질을 함께 나누는 어린 손길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차올랐다. 11월 초 저녁 날씨는 쌀쌀했지만, 마음은 훈훈해졌다.

봉사자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벨몬트 하이스쿨 10학년에 재학 중인 김 데니얼 군의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기로 하자. 언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는지 물었다. 2년 전 8학년 때 하버드홈리스미션에 조

인을 하게 되었으며, 팬데믹이 시작된 때라 조심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했으며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재미 있었다고 한다. 노숙자의 생활을 몰랐었지만, 봉사를 하면서 노숙자들의 삶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홈리스 피플을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노숙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없는데, 얘기를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뮤직(음악)을 좋아하니 음악힐링에 관심이 있으며, 병원이나 요양원 등 재능기부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

6학년에 재학 중인 윤 피터 군과 그의 이야기를 나눠본다. 작년 10월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보람되고 뜻깊은 일이라 여겨진다고 했다. 홈리스 피플들과 마주하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많이 행복했다. 또한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봉사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란다. 음악과 노래로도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 8학년의 한예린 학생은 플루트를 좋아해 음악과 그림으로 재능기부를 한다. 팬데믹 때문에 2020년은 홈리스 피플들을 돕고 싶은데, 두려움이 커 머뭇거리기도 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하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앞으로로도 계속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한다. 홈리스 피플들을 만나며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그분들이 말을 많이 나누고 싶으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짧은 대화로 그들과 만나고 헤어짐이 안타까웠다. 나중에 커서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슴 아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자의 꿈을 갖고 싶어졌다고 한다.

12학년인 이 앤드류 군은 9학년 때 봉사를 시작해 햇수로 4년째를 맞았다. 노숙자들과 팬데믹으로 오랜 시간을 마주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그림이나 함께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노숙자들과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대학교에 가서도 아는 형들과 친구들과 그룹 프로젝트를 해 미술클럽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것으로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 9학년인 김종민 군은 작년에 봉사 활동을 친구를 통해 시작했는데, 재밌고 새로운 사람과 환경과 만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그림을 좋아해 그림

을 그려서 판매(펀드레이징)를 해 노숙자들을 돕고 싶다고 한다. 9학년인 정 조수아 군은 음식을 도네이션 받아 계속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한다.

10학년인 이주형 군과 8학년인 이지훈 군 그리고 9학년인 고석현 군은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준비한 물품들을 전해드리고 그 자리에서의 노숙자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며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9학년인 John Kim 군은 올 1월에 시작했으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마음을 열 수 있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 좋았다고 한다. 음악을 좋아하여 탑스 암센터와 세인 주드 그리고 칠드런 হাস피탈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0학년인 황제이슨 군은 9학년 여름에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돕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 음식도 나누고 블랭킷과 생활용품들을 계속 준비해 봉사하고 싶다고 한다.

6학년에 재학 중인 김 단비 양은 팬데믹 때는 정말 무서웠다. 그러나 무서워하면 안 되겠다 싶어 열심히 그림을 그려 봉사를 계속했다.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카드를 예쁘게 만들고 하면서 노숙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다. 계속 그림을 그리고 카드를 만들어 봉사를 계속할 것이다. 또한 노숙자 분들과 마주하면 외로워 보였다. 말을 들어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다. 앞으로도 봉사를 하며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다고 한다. 최서경 학생은 작은 노력으로 여러 노숙자들이 행복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한다. 음식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나눌 때 그분들이 고마워할 때 더욱 행복하다고 한다.

11학년의 이 나나 학생은 팬데믹 시작부터 HHMI 재단에 봉사를 시작했다. 어린이 병원에 Healing Arts 작품들과 크리스마스, 발렌타인즈 데이, 할로윈 데이에 할러데이 카드를 만들어 도네이션을 하였다. 홈리스들을 위한 밀프렙, 베이킹, 케어백 데코, 스낵 패키징, 아웃팅을 했다. 어린이 병원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카드를 만들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카드를 전해받고 아픈 친구들이 기뻐하고 힘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11학년의 정동현 군은 팬데믹 이후 모든 것이 바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한 삶일까를 생각하던 중에 하버드홈리스미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노숙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봉사를 다니며 제 삶에 대해 더 감사하는 마음을 넓혀가야겠다는 생각에 학교에도 클럽을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하버드홈리스미션(HHMI)' 재단에서 이원경 씨와 한성경(샌디 한) 씨가 대표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봉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다리 역할을 담당하는 학부모가 문혜빈 씨다. 문혜빈 씨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기로 하자.

'저는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자기 자신을 돕는 행동이라는 것을 벌써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나눔과 감사를 역지로 가르칠

수 없는데 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자라나고요. 봉사가 아이들의 삶의 당연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가 저희에게 주어져서 감사드리고요. 팬데믹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아이를 거리에 내보낼 때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거리에 나가 케어패키지를 전하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추운 날이나 비 오는 날,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에는 거리에 있는 홈리스들을 함께 떠올리며 마음 아파합니다. 막연한 이타심이 진심 어린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늘 감사합니다."

HHMI 봉사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다 담고 싶었지만, 지면상 줄여서 담아야 함을 안타까워하며 양해를 구하는 마음이다. 자녀들과 함께 움직이며 봉사하는 부모님들의 그 관심과 열정과 봉사에 감사한 마음이다. 또한 '하버드홈리스미션(HHMI)'에 큰 응원의 박수를 드린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바로 알기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극심한 통증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주로 말기 암 환자나 수술 후 통증 등 중등도 이상의 ‘급성’ 또는 ‘만성통증’ 환자의 통증을 다스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통상 마약성 진통제는 ‘천정효과(ceiling effect)’가 없다 보니 통증이 조절될 때까지 최대 용량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장기간 사용할 경우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성이 커질 위험이 높은 만큼 의료진과 상의해 올바르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이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면서도,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약이라는 사실이다. 심한 마약성 진통제 중독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는 대부분 개인의 무분별한 불법 오남용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지켜 사용한다면 통증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중독은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피부에 붙이는 패치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펜타닐 패치’를 마약대용으로 불법 처방받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가뜰이나 중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인식으로 마약성 진통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도 복용을 매우 꺼리

는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성 진통제 불법 유통, 전부 의료기관 책임 ?

미국은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 한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마약성 진통제의 80%가 미국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도 말이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으로 한 해 평균 5만여 명이 사망하고 170만 명이 중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는 심각하다. 의료용으로만 사용돼야 하는 마약성 진통제의 불법 처방은 물론, 불법 거래가 적발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오남용 문제의 책임을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준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는 급성·만성통증이나 암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량과 투여 방법을 지켜 정확하고 안전하게 투여할 경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통증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가 꼭 필요한 환자들이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대한통증학회가 지난해 9-10월 환자와 의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환자 10명 중 4명(38.5%)이 “의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도 복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복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중독될까(의존하게 될까) 걱정’에서 라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작용이 무서워서’가 33.3%로 뒤를 이었다. 의사들도 처방 시 걱정되는 문제점에 대해 61.8%가 ‘중독 및 오남용’을 꼽았다. 처방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부작용’이 86.8%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우려에도 의료진들은 “암이나 수술 후 통증 등 심각한 만성통증·질환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극심한 통증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잘못된 오해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 사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통증으로 치료 효과가 떨어질 경우 근감소증이나 수면장애·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의료진들은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과 의료진의 통제 하에 통증의 강도에 맞춰 약효를 신중히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더불어 마약성 진통제는 내성이나 오남용 등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이 높은 만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의료진들의 노력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비(非)마약류 진통제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권고되는 등 사용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며 용량을 조절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의료진은 가이드라인에 맞는 처방과 함께 부작용과 약물량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환자들이 불안감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마약성 진통제 ‘감시 시스템’ 강화돼야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와 마약류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유통을 감시하고 있다. 의약품

안전 사용서비스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의 투약 상황을 점검한 후 처방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약물 중복처방이나 부작용 등을 미리 점검하게 된다. 마약류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은 환자의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고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독이나 불법 오남용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의 통증이 극심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스템 정비·강화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가 반드시 의료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이 마약과 마약성 진통제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중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의료진의 처방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사라지길 바란다.

“마약성 진통제 바로 알기”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세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보스톤 전망대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신라 48대 경문왕의 이름은 응림이다. 18세에 화랑이 되었다.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현안대왕이 그를 불러 묻기를 화랑이 되어 사방을 돌아다녔으니 본 것이 있었는가? 하고 물으니 신은 아름다운 행실이 있는 자 3명을 보았습니다. 남의 뒷자리에 있을만한 사람이면 서도 겸손하여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요, 부자이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돌이요, 세력이 있으면서도 위력을 부리지 않는 사람이 그 셋입니다. 그 말을 듣고 현안왕은 응림이 어질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중의 한명을 경의 시중을 들게 하리다" 하며 청혼하였다.

왕의 첫째 공주는 인물이 초라하지만 둘째 공주는 출중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응림이 거느리고 있는 낭도 중에 범교사라는 중이 있어 응림에게 3가지 좋은 일이 있으니, 첫째 공주에게 장가 들 것을 강권하였다. 응림이 범교사의 말을 따르지 3개월 후에 현안왕이 급서하면서 "나에게는 사내자식이 없으니 마땅히 만딸의 남편 응림이 뒤를 잇도록 하라" 하고 다음날 붕어하였다.

응림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48대 경문왕(AD861~875 재위)이다. 이에 범교사가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전날 제가 얘기했던 3가지 좋은 일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만 공주를 맞으셨기 때문에 지금 왕위에 오르시었고, 다음으로 지난날 연모하셨던 아우 공주를 이제는 쉽게 취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를 맞으심으로 하여 선왕과 왕비께서 무척 기뻐하시게 되었던 것이 그 셋째입니다."

왕은 전에 범교사가 깨우쳐 주었던 그 말이 고마워서 그에게 대덕의 직위를 내리고 금 1백30냥을 내렸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경문왕의 침전에는 날마다 저녁이 되면 무수한 뱀들이 모여들곤 하였다. 궁인들이 뱀을 몰아내려고 하면 왕이 말하기를 "나는 뱀들이 없으면 편히 잘 수가 없다. 그냥 두어라." 왕이 잘 때면 매양 뱀들은 허를 날름거리며 왕의 가슴을 뒤집곤 했다고 한다.

경문왕 즉위 후에 밤마다 침전으로 몰려들어 궁인들을 공포에 떨게한 뱀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아마도 이들은 있을지도 모를 정변에서 경문왕을 지키는 수호세력? 화랑시절에 경문왕은 천여명에 달하는 낭도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침전의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왕을 지키는 낭도들의 무리가 아닐까?

신라 43대 희강왕은 경문왕의 친조부였다. 희강왕 3년에 상대등 김명(金明)과 시중 리흥(利興)이 희강왕을 삼히 겁박하여 왕을 자살케하고 본인 김명이 4대 민애왕이 되었다(838). 그러나 곧이어 김우징이 청해진 대사장보고를 격동시켜 명분없이 희강왕을 죽게 한 민애왕을 사살하였다.

경문왕 연간에 3천이나 왕족이 일으킨 반란이 있었는데 경문왕이 이를 예상하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제는 경문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귀가 갑자기 커져버려 마치 당나귀의 귀와 같이 되었다. 왕후도 궁인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한사람 복두를 만드는 장인(匠人)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장인은 왕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할 수 없어 평생도록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다. 그러다가 본인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도림사 대나무 숲 속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 대나무들을 보고 외쳤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뒤로 바람이 불면 도림사 대나무 숲에서는 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대나무를 베어내고 대신 산수유를 심었다. 그뒤로 바람이 불면 단지 이렇게 소리가 났다. "임금님 귀는 길기도 하다."

도림사는 경상북도 월성군 내동면 구항리에 있던 절로 알려져 왔다. 추정지의 하나로 지목되는 경주시 구항동 화천(花川) 냇가 주변에는 지명조차 화천이라는 꽃 화자를 써서 이른 봄에는 온통 노란 산수유가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설화는 동서양 여러 곳에서 아주 많이 알려져 온 이야기였다.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은 BC8세기에 소아시아 프리지아(Phrigia)의 마이더스 왕에 관한 것으로 희랍의 작가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가 BC450~388년에 쓴 것이고, 가장 최근의 것이 경문왕 때의 설화였다. 경문왕과 마이더스왕의 이야기는 당나귀 귀가 주제가 되지만 프랑스, 루마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칠레와 같은 지역에서는 말이나 수산양들의 귀가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인도, 몽골, 터키, 투르크스탄, 키르키즈 등에서도 동일한 설화가 있는데 모두가 당나귀 귀를 주제로 삼고 있다.

이야기의 주인공 경문왕은 18세에 결혼하고 왕이 되었다.

14년간 왕위에 있다가 32세때 사망했는데, 꽤나 굴곡이 많은 일생이었다. 즉위하고 다음 해에 역병(천연두)이 유행하고, 홍수와 가뭄 중에 곡식이 여물지 않아 기근으로 온 국민이 어려웠다. 세번에 걸쳐 왕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왜구가 침공했는가 하면 지진과 또 다른 역병이 닥쳐왔다. 결국 32세의 젊은 나이에 힘든 여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2남 2녀의 자손을 두었는데 장남은 875년에 헌강왕이고 차남은 886년에 정강왕, 차녀가 997년에 진성여왕이었다. 그리고는 또 한명의 후손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나중에 태봉국의 왕이 된 궁예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궁예는 현안왕 또는 경문왕의 비빈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로 기록되어 있다.

궁예가 891년에 세달사를 떠나 처음으로 군벌 양길과 어울려 봉기에 참여한 시기를 미루어 짐작하면 그의 출생일이 현안왕쪽인 857



전남 강진 무위사 선각대사비, 궁예가 나주 점령



안성 칠장사 벽화에 그려진 궁예

년보다는 경문왕쪽인 869년 서자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

태봉국 군왕 궁예

궁예는 음력 5월 5일에 외가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흰 지붕위에 있었고 날때부터 이가 있었다. 당시 단오에 태어난 아이는 불길하게 여기던 풍습이 있어 일관이 왕에게 궁예를 죽일 것을 청했다. 왕명으로 궁예를 죽이려던 중사(中使)는 궁예를 포대기에 싸서 높은 누대에서 던졌다. 누대 아래도 떨어진 궁예를 유모가 밑에서 받아 목숨은 구했지만 이때 유모의 손가락이 눈을 찌르는 바람에 한쪽 눈을 실명했고 유모는 궁에서 멀리 도망가 궁예를 길렀다고 한다. 이런 출생의 사연 때문에 궁예는 신라를 적대시하였다고 한다. 궁예가 10여세가 되었을 무렵, 유모는 주위에 말썽만 일으키는 궁예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며 너의 정체가 알려지면 우리 모두 살해당할 것이니 슬픈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궁예는 재가 집을 나가서 더 이상 어머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세달사에 몸을 기탁하고 이름을 선종으로 정했다.

궁예가 세상에 이름을 날린 것은 진성여왕



BC 8세기 마이더스왕의 무덤



경주 화천변의 산수유 나무터



태봉국에서 발견된 1,100년전의 석등

6년(892)에 복원(원주)의 양길 휘하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불과 4년만에 주천(원주), 내성(영월)에 이어 명주(강릉)의 김순식에게 항복을 받아내면서 양길을 제치고 미륵불을 자처하며 행동하였다. 여러 호족들이 자진해서 투항하여 진성여왕 9년(895)에 태봉(철원)에 도읍을 정하게 되었다.

후백제에게 궁예군이 결정타를 내린 것은 903, 909, 910년 3회에 걸쳐 후백제의 중요한 해상거점이었던 금성(錦城: 지금의 나주)을 화공으로 공격해 견훤군이 앞뒤로 적을 맞게 되었다. 전라남도 강진의 무위사 경내의 선각대사 비문에 궁예의 무공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궁예에게는 사람들을 일단의 의심하고 보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 또 그는 신화와 백성을 헐뜯는 도구가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관심법이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 숨기면 죽는다는 것이었다. 관심법에 걸려 죽음을 당한 사람이 왕비 강씨였다. 관심법에 걸렸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궁예를 쫓아낸 고려 태조 왕건이었다.

BLACK FRIDAY SPECIAL OFFER

(세일기간: 11월 30일까지)

“후지 안마의자가 강력한 침단 기능으로
다시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DR. FUJI 8500

- ◆ 타 명품 안마의자 장점을 골라 만든 최상급 안마의자
- ◆ 프로 안마사 손길에 가장 근접한 마사지 체에
- ◆ 몸속 감속이 침투! 빈틈없고 확실한 마사지 요법

BRAND
NEW



**EVERYCARE
PKH107**

더욱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
커피한잔의 가격으로 구입하세요~

SPECIAL PRICE **REG. PRICE**

\$68/월 **\$2,900**

김치냉장고 전품목

초대박 세일

★ 김치냉장고 스페셜 세일 : 11월 30일까지 ★ (\$250 delivery fee → FREE limited time)

Special Gift 담채 스텔링 구입시 1. 10L 100% 반송 2. Clay Warmer 무료 증정 담채 180L \$1599 → \$1099 담채 220L \$1599 → \$1599	담채 418L \$3499 → \$3199 담채 418L \$3499 → \$3199 담채 330L \$2799 → \$2799 담채 330L \$2799 → \$2699 담채 127L \$849 → \$849 담채 100L \$999 → \$999	Special Gift LG 330L / LG 400L 구입시 구분별 리본 (메트) 무료 증정 LG 330L \$2349 → \$2349 LG 400L \$2699 → \$2699 LG 450L \$989 → \$989	Special 2021 NEW MODEL 초대형 삼성김치냉장고 출시 490L \$1899 → \$1899
---	---	---	---

온수매트의 절대강자 경동 Navien

- ◆ 1mm 두께의 초슬림 매트
- ◆ NTC 테크놀로지: 온도 제어 기술 구현
- ◆ 완벽한 이중(좌/우) 분리난방: 한 침대 위에 두 개의 온도!
- ◆ 미생물 번식 방지위한 살균모드
- ◆ 고온 모드 알림기능
- ◆ 자동정지 타이머

전통 온돌 문화의 새로운 매트역사!

- ◆ 고급스러운 디자인
- ◆ 강력한 난방효과
- ◆ 뛰어난 쿠션감

1. 한국형보다 30% UP!
2. 뒷면 미끄럼 방지처리
3. 두께 변화: 더 두꺼워짐
4. 매트 가장자리 보강

HITRONS™
LEXINGTON, MA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 www.hitrons.com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척추관절

나이가 들면서 오는 척추관절 퇴행성 질환...
통증을 참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치있는 생활을 위하여...하루 빨리 검사해보세요!

“ 지금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검사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진행해보세요,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관절 질환

퇴행성관절염
인대파열
연골손상
오십견
회전근개손상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등등

세포치료, 체외충격파,
관절내시경, 발목골절술,
원다리교정술
로봇인공관절등등



척추 질환

디스크
협착증
측만증
거북목증후군
골절 등등

미세현미경디스크절제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유합술
신경성형술등등

*** 정확한 상담을 위해 기존에 촬영하신 X-RAY, MR-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랑플러스병원(강동구 굽은다리역), 연세사랑병원(서초구 사당역)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J2K
(주)제이투케이컴퍼니
협력업체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무료
견적
상담

🌐 www.namuma.com
✉ info@namuma.com
☎ 617-775-4771
📍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 @namu_finewood

INSTAGRAM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 02142



Susan Ahn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ty.group

Kakao ID: susan1223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